

한국이민사박물관 에네켄 기계 학술조사 보고서



발간사	04
한국이민사박물관 소장 에네켄 기계 현황과 복원 전민숙 (한국이민사박물관)	07
멕시코 초기 한인 이민사와 에네켄 기계 박영미 (한국외국어대학교)	21
이민사 유물 수집과 전시 기량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운영과)	43
한국이민사박물관 소장 에네켄 기계 현황과 보존 방안 허윤희 (한국이민사박물관)	63
에네켄 기계 유물목록	76
참고 도판	79
3D 도판	82

1905년 멕시코로 이민을 갔던 우리 선조들은 에네켄 농장의 살인적인 기후에서 고된 노동을 하였습니다. 아시엔다라는 농장에서 한인들은 에네켄 잎을 베고 잎사귀들을 묶어 다발을 만드는 일을 하였습니다. 한국이민사박물관 에네켄 기계는 그렇게 수확한 에네켄의 섬유질과 껍질을 분리하는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20세기 초 한인 이민자들이 종사했던 에네켄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유물은 멕시코 아시엔다 티치물에서 현지 구입하였으며,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우리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입수된 2005년 이후 줄곧 보관되어 있던 에네켄 기계를 미주 이민사 전시에 활용하고자 우리박물관에서는 올해 학술조사의 주제로 정하였습니다. 에네켄 기계의 원형을 확인하고 향후 보존처리 및 복원에 밑거름이 될 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그동안 분리되어 있던 에네켄 기계의 세부 부품을 일일이 확인하고 3D 스캔하였으며, 그 결과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기계의 전체 크기와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D 도면 자료를 통하여 에네켄 기계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향후 보존처리 및 복원에 대하여 고찰하였습니다. 유물의 역사적 배경을 돌이켜보고, 20세기 초 멕시코 이민의 실상과 향후 에네켄 기계의 전시 연출 방안을 구하였습니다.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던 에네켄 기계에 관심을 가지고 되돌아볼 계기를 마련해 주신 인천 광역시립박물관 유동현 관장님과 이 책의 발간을 위해 조사와 원고 작성에 애써주신 박물관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료의 역사적 의미와 향후 전시 방안에 대해 논고를 작성해주신 박영미, 기량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번 조사보고서의 내용을 기초자료로 삼아 에네켄 기계를 우리박물관에 복원 전시할 예정입니다. 더 나은 삶을 꿈꾸고 떠났던 외지에서 예상 밖의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였지만 강인한 생활력으로 이겨낸 한인 이민자들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한국이민사박물관장 박 진 영

Nuestros antepasados, que emigraron a México en el año 1905, trabajaron duramente bajo el abrasador clima de los cultivos del henequén. En las fincas llamadas “Haciendas”, los coreanos se encargaban de cortar las hojas del henequén y atarlas para formar manojos de hojas. La máquina de henequén del Museo de la Historia de la Emigración de Corea era utilizada para separar las fibras de la cáscara del henequén, y tiene una estrecha relación con la industria del henequén a la que se dedicaban los inmigrantes coreanos a comienzos del siglo XX. Esta pieza ha sido adquirida desde la hacienda Ticimul de México, y nuestro museo es el único en el país que posee una pieza de este tipo.

La máquina de henequén estuvo guardada desde su adquisición en el año 2005, y nuestro museo ha decidido designarla como tema de la investigación científica de este año para utilizarla en la exhibición de la historia de la emigración al continente americano. Tenemos como objetivo verificar la forma original de la máquina de henequén y redactar materiales que servirán de base para el tratamiento de preservación y la restauración.

En esta investigación hemos verificado cada pieza de la máquina de henequén que han estado desarmadas hasta el momento y las hemos escaneado en 3 dimensiones. Como resultado de ello pudimos verificar el tamaño total y la forma de la máquina que no conocíamos anteriormente. Se conoció el estado actual de la máquina de henequén a través del plano de 3 dimensiones y se deliberó sobre el posterior tratamiento de preservación y restauración. Reflexionamos sobre el trasfondo histórico de la pieza y buscamos las medidas a tomar para la exhibición de la situación real de la emigración a Mexico a inicios del siglo XX y de la máquina de henequén.

Quiero hacer llegar mi agradecimiento al señor You Donghyun, director del Museo de la Ciudad Metropolitana de Incheon, que nos ha motivado a interesarnos y reflexionar sobre la máquina de henequén, y al personal del museo que se ha esforzado en la investigación y la redacción del texto para la publicación de este libro. También agradezco profundamente a la señora Park Young-mee y al señor Ki Yang que han redactado el argumento sobre el significado histórico del material y las medidas futuras de exhibición.

Planeamos restaurar y exhibir la máquina de henequén en nuestro museo en base al contenido del informe de investigación, tan pronto como sea posible.

Espero que sea una ocasión para reflexionar sobre la vida de los emigrantes coreanos que han partido por una vida mejor, se encontraron con una situación desesperanzadora fuera de sus tierras, pero que al final supieron salir adelante con su fuerte voluntad para ganarse la vida.

Director del Museo de la Historia de la Emigración de Corea
Park jin yung

한국이민사박물관 소장 에네켄 기계 현황과 복원

전민숙 한국이민사박물관

I. 머리말

II. 멕시코 에네켄의 역사와 아시엔다(hacienda)

III. 한국이민사박물관 소장 에네켄 기계의 현황과 복원

IV. 맺음말



한국이민사박물관 소장 에네켄 기계 현황과 복원

전민숙 한국이민사박물관

I. 머리말

한국이민사박물관소장 에네켄 기계는 2008년 6월 13일 개관을 위해 2005년 멕시코로부터 구입하였으며, 지금까지 기계에 대한 정확한 연구가 진행 되지 않아 공개를 할 수 없었다. 최근 멕시코 관련 전시가 열리면서 에네켄에 대한 역사가 좀 더 우리들에게 가깝게 다가오기도 하였다. 한국이민사박물관에서는 에네켄 기계가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전시를 위해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다.

에네켄 기계는 에네켄이라는 식물의 내용물(섬유질)과 껍질을 분리하는 기계로 본체2개와 엔진1개로 이루어져있다. 이 기계는 에네켄이 산업용 로프의 재료로 쓰이면서 멕시코 산업의 부흥과 함께 좀 더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개발된 기계이며, 당시에 멕시코 유카탄의 메리다를 중심으로 퍼져있었던 에네켄 산업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에네켄 기계가 발명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기계가 발전되어 1시간에 100장의 껍질을 벗길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1860년대 이후 증기력을 가지고 공장의 대량 생산이 이어지면서 산업화는 급속도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국이민사박물관 소장 에네켄 기계 또한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기계로 멕시코 메리다의 티치물 아시엔다(Ticimul Hacienda)에서 사용하였던 기록이 남아있다.

에네켄 기계는 다양한 형태로 현재 멕시코의 아시엔다를 중심으로 남아있으며, 한국에는 유일하게 한국이민사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19세기에서 20세기에 걸쳐 짧은 기간 동안 멕시코 전 지역의 아시엔다에 설치된 에네켄 기계는 멕시코뿐만 아니라 당시의 멕시코로 이민 간 우리들의 선조들과도 큰 연관성이 있다. 따라서 에네켄 기계에 대한 역사적인 조명과 함께 한국이민사박물관에 보관중인 현재의 상태와 각각의 부품의 조립을 통해서 원형에 대한 고찰을 해보고자한다.

II. 멕시코 에네켄의 역사와 아시엔다(hacienda)

에네켄은 메소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용설란(agave)과의 식물이며, 마야어로는 키(ki) 또는 네켄(nequen)이라고도 불린다.(도 1) 현대학자들이 붙인 학명은 ‘agave fourcroydes’이며, 미

국 무역상들은 ‘sisal hemp’라하고 유카탄에서는 ‘henequén’이라고 부른다.¹⁾ 에네켄은 마야인들 사이에서 자급자족용 필수품으로 오래전부터 이 식물에서 추출된 섬유로 노끈, 밧줄, 해먹, 가방 등 기타 생활용품을 만들어 사용하였다.²⁾



에네켄



에네켄 꽃과 섬유질 표면 그림

〈도 1〉 에네켄 사진

에네켄은 파종하지 않고 묘목을 심는데 6,7년이 지나면 뿌리에서 새싹이 나온다. 이 종자 싹으로 4,5인치 정도 자라면 종자 재배장에 이식한다. 약 5년이 지나면 앞에서 섬유를 채취하게 되며 이렇게 25년에서 30년을 키우면 섬유를 산출 할 수 있다. 이러한 에네켄이라는 식물이 세계 경제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계기는 1878년 미국 맥코믹(McCormick)사가 밀 수확기를 발명하면서 밀 생산에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면서부터이다. 밀 생산의 폭발적인 증가는 밀의 포대와 노끈 또한 대량으로 필요하게 되면서 에네켄 산업의 부흥을 가져왔다.



〈도 2〉 멕시코 지도 및 유카탄 반도

1) 이자경, 『멕시코 한인 이민 100년사 - 에네켄 가시밭의 100년 오딧세이- 上』, 멕시코 한인 이민 100주년기념 사업회, 2006, p. 461.
2) 서성철, 『유카탄 에네켄 산업의 역사적 조망-멕시코 혁명 전후시기를 중심으로』, 『중남미 연구』 33-1,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2014, p. 249.

에네켄의 경작지는 멕시코 유카탄의 북동부 지역 특히 메리다 지방을 중심으로 많이 생산되었다.(도 2) 1883년에 유카탄주의 전체 토지 중 60퍼센트가 에네켄 밭이었으며, 이때 유카탄주의 총 4139개의 농장 가운데 843개로 전체 중에 1/4을 차지하였다.³⁾ 에네켄 산업의 발전은 옥수수나 목축업을 하던 아시엔다들이 에네켄 농장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에네켄은 제 1차 세계대전(1914~1918)이라는 전쟁 특수로 인해 최고의 번영을 누리고 1916년과 1918년 사이 유카탄은 에네켄 생산량이나 수출에서 황금시대를 구가하게 된다.⁴⁾ 1918년 이후에는 에네켄 가격이 하락하여 1932년에는 1.9센트로 최저를 기록하게 된다.



멕시코 아시엔다 야스코포일(Hacienda Yaxcopoil)

〈도 3〉 아시엔다 야스코포일(Hacienda Yaxcopoil) 건물 이름 및 위치

3) 서성철, 앞의 논문, 2014, p. 248.
4) 위의 논문, 2014, p. 255.

아시엔다(hacienda)는 대농장 제도로써 채무노예의 노동에 기반을 둔 대규모 토지소유 또는 대농장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대농장 제도는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으며, 특히 노동력 착취는 큰 문제로 대두되었고, 이러한 여파는 1905년 한인들이 멕시코까지 이민을 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17세기부터 운영을 시작한 야스코포일 아시엔다(Yaxcopoil Hacienda)는 마야어로 ‘미루나무가 있는 곳’이라는 뜻이다.(도 3) 전체 면적이 22,000 에이커로 유카탄 반도에서도 가장 비중 있는 아시엔다였다. 위치 지도를 살펴보면 아시엔다 안에는 사무실부터 교회, 상점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에네켄 기계는 ‘MACHINE ROOM’인 19번의 건물에 배치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시엔다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굴뚝이라고 할 수 있다. 유카탄은 식수로 보통 우물을 파서 물을 얻는데 증기 펌프를 이용해서 큰 저수지에 물을 저장해 놓고 사용한다.⁵⁾ 증기 펌프는 물을 끌어올려 파이프를 통해 농장의 밭에 물을 공급하였고, 에네켄 잎사귀에서 섬유를 추출하는 압착기가 가동하는데 필요한 증기를 만들기 위해 보일러에 물을 공급하기도 했다.⁶⁾



티치물 아시엔다(Ticimul Hacienda) 지도 및 항공사진

〈도 4〉 티치물 아시엔다(Ticimul Hacienda) 위치

한국이민사박물관 소장 에네켄 기계가 있었던 티치물 아시엔다(Ticimul Hacienda)는 메리다 시내에서 약 10km 떨어져 있어 중심도시에서 그다지 멀지 않으며, 현재 2동의 건물과 굴뚝 그리고 에네켄을 건조하는 건조장이 남아있다.(도 4)

티치물 아시엔다 외부를 살펴보면 티치물 건물은 1층 건물이지만 안쪽은 중층의 높이로 건립되었다.(도 5) 건물 정면과 후면에는 4개의 문이 설치되어있으며, 측면 또한 1개 또는 2개의 문이 설치되어있다. 야스코포일 아시엔다(Yaxcopoil Hacienda)와는 규모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으며, 티치물에는 주거지역은 따로 없다. 아시엔다에 필요한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기에 규모가 작아져도 식수 또는 관수를 이용하기 위해 증기를 설치하여 물을 끌어올리는 작업

5) 위의 책, 2006, pp. 460~461.

6) 호세 산체스, 『희상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한국인들의 삶과 노동-』 재외동포재단, 2005, p. 8.

을 하기 위해 굴뚝을 세워놓았다. 티치물 아시엔다 내부를 살펴보면 이층 구조로 위쪽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설치되어있다. 에네켄 기계가 설치되어있는 부분에는 굵은 나무가 가로로 놓여져 있고 사이에 간격이 벌어져있어 아래쪽으로 에네켄 잎의 껍데기와 즙이 떨어질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정면에는 앞서 다른 아시엔다에서도 보았듯이 리프트를 설치하여 에네켄을 옮겼을 것이고 위쪽에서 작업한 에네켄은 후면에 보이는 철길로 옮긴 큰 수조에 담아 밖에다 버리는 형태로 작업을 하였을 것이다.

티치물 (Ticimul) 건물 외부의 모습



▲ 정면 모습



▲ 정면 모습



▲ 측면 모습



▲ 건조장 모습

티치물 (Ticimul) 건물 내부의 모습



▲ 정면 오른쪽



▲ 정면 왼쪽 (리프트 설치)



▲ 후면

▲ 이층 에네켄 기계 설치 부분

〈도 5〉 티치물 아시엔다(Ticimul Hacienda) 건물 사진

Ⅲ. 한국이민사박물관 소장 에네켄 기계의 현황과 복원



〈도 6〉 에네켄 기계 전체의 모습

산업혁명 이후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발전되었는데 선박용 로프(Rope)를 주로 만드는 에네켄 또한 이러한 전 세계의 흐름에 동반하여 자동화된 기계가 탄생된다. 에네켄 기계는 짧은 시간에 다량의 에네켄의 껍질을 자동으로 벗겨 에네켄의 수요가 급증하였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한 기계라고 할 수 있다. 당시의 에네켄 산업의 번성을 생각하면 이러한 기계의 제작이 멕시코 전역의 각각의 아시엔다에 설치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이민사박물관 소장 에네켄 기계와 부속품들은 금속, 목재, 천 등 다양한 재질로 이루어져있다.(에네켄 기계유물목록 p.76~78) 현재 파악되는 유물점수는 37점이며, 부재들이 서로 결합되어있어 점수로는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에네켄 기계의 구성을 살펴보면 본체로 구분되는 기계 2개와 엔진부로 나눌 수 있다.(도 6) 에네켄 기계를 설명하기 전에 에네켄의 가공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자한다.

1 단계		2 단계	
에네켄 채취	에네켄 가공장 이동 리프트 이용 운반	에네켄 컨베이어 벨트에서 정리	껍질분리 준비
3 단계		4 단계	
전체 껍질 분리	껍질 분리 마지막 과정	껍질 분리 완료	건조장으로 이동

〈도 7〉 에네켄 가공 과정

에네켄의 가공과정을 살펴보면 4단계로 나뉘 볼 수 있다.(도 7) 에네켄을 밭에서 채취해서 가공장으로 이동시킨 후 리프트에 올려놓는 작업이 1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후 리프트를 이용해서 에네켄을 위쪽으로 올려서 컨베이어 벨트와 같은 급엽판(給葉板)에서 정리하는 에네켄 분리 준비가 2단계이다. 본격적으로 에네켄 기계로 들어가 껍질과 섬유질로 되어있는 내용물을 분리하는 작업이 3단계이다. 껍질 분리 완료 한 후 건조장으로 이동하면 4단계의 작업이 끝나며 이후 건조한 후 다시 실로 재처리 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에네켄 기계가 발명되기 전에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모든 것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졌는데 기계가 발명되고 난 후 부터는 다량의 에네켄 잎의 껍질을 벗겨 생산량에 큰 수확을 가져왔다. 이처럼 에네켄 가공 전체 과정 중에서 3, 4단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에네켄 기계가 하고 있다.



〈도 8〉 Hacienda Sotuta de Peon 외부(왼쪽)와 내부(오른쪽)

다음으로 에네켄 기계가 설치되어있는 아시엔다의 외부와 내부 구조를 파악 해보고자 한다.(도 8) 에네켄 기계의 전체의 모습을 현재 운영 중인 아시엔다 소투테 빼온(Hacienda Sotuta de Peon)을 통해서 살펴보자한다. 에네켄 기계는 공간이 분리되어 본체부와 엔진부로 나뉘지며, 본체부는 2층 구조의 건물에 설치된다. 외부의 모습은 에네켄을 잘라서 공장으로 운반해 오면 본체부 앞에서 리프트로 이동하여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된다. 내부의 모습은 리프트를 타고 올라온 에네켄은 급엽판(給葉板)을 통과해서 본체로 들어간다. 다음으로 아시엔다 야코포일(Hacienda Yaxcopoil) 에네켄 기계의 내부의 모습과 각부 명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도9)



순번	명 칭	설 명
1	에네켄 리프트	목재로 만든 사다리 형태의 중심축에 금속 체인을 설치해 에네켄을 2층으로 올려 보내는 리프트
2	급엽판(給葉板)	리프트를 타고 올라온 에네켄을 본체로 이동 시키는 장치, 컴베이너 벨트라고 할 수 있다.
3	제 1 고형륵 (제 1 鼓形輪)	금속으로 만든 드럼 휠로 목재의 원통으로 싸여있다. 제 1 고형륵과 제 2 고형륵 각각 에네켄의 절반씩의 껍질을 벗기고 세척.
4	제 2 고형륵 (제 2 鼓形輪)	
5	도르래 시스템 (pully system)	에네켄 기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엔진과의 연결고리가 있어야하는데 휠(Wheel) 을 이용해 엔진 또는 다른 부품과의 연결을 돕는 시스템

〈도 9〉 아시엔다 야코포일(Hacienda Yaxcopoil) 에네켄 기계 각부 명칭

에네켄 리프트를 타고 올라온 에네켄은 급엽판을 지나서 제1.2 고형륵을 통과하여 껍질이 벗겨져 나온다.⁷⁾ 이 고형륵은 엔진과 연결되어 가동되는데 이 연결시스템은 도르래 시스템을 이용하여 연결하였다. 도르래 시스템은 엔진과 본체를 이어주고 있으며, 각각의 천장에 설치 되어있는 휠과 연결하여 다른 부분의 에너지로도 쓰였다.(도 10)



〈도 10〉 본체와 엔진의 연결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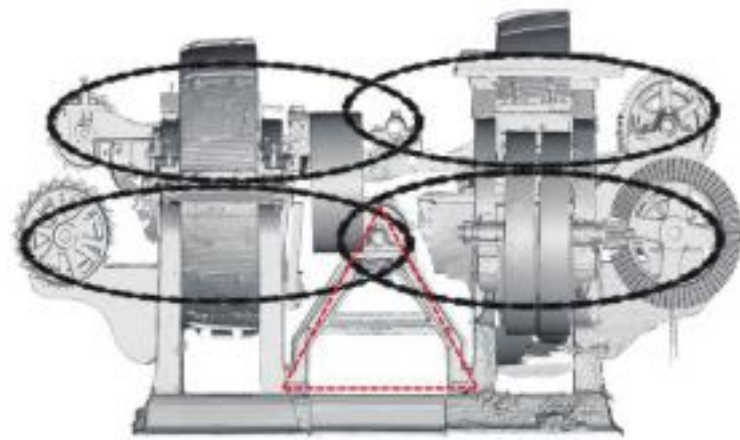
지금까지 에네켄 기계의 설비 전반의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멕시코 현지에 남아있는 아시엔다의 에네켄 기계를 토대로 티치물 아시엔다에서 가져온 한국이민사박물관소장 에네켄 기계의 복원을 해보고자한다.

1. 본체부

에네켄 기계는 본체 1, 2가 같은 건물에 배치되고 연결되어서 작동한다. 본체 1로 들어간 에네켄이 제 1 고형륵을 통과한 후 다시 제 2 고형륵을 통과하고 나오게 되는데 제 1 고형륵에서 절반의 껍질이 벗겨지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제 2 고형륵에서 벗겨진다. 본체 1과 2의 연결은 체인과 ‘A’자형으로 되어있는 부재로 연결되어있다.



7) 고형륵(鼓形輪)이란 큰 드럼 휠(Drum Wheel)로 큰 바퀴가 돌아가면서 에네켄의 껍질을 벗겨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드럼휠은 2개가 장착 되는데 에네켄을 절반씩 껍질을 벗겨내며, 이후 에네켄 기계 중에는 고형륵이 하나만 장착되는 경우도 있다.



본체 1 + 본체 2

〈도 11〉 본체 1,2의 결합한 3D 입체 사진

‘A’자형 부재 위에는 휠이 위 아래로 2개씩 있어 체인을 걸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도 11) 따라서 체인은 4개가 걸리며 위아래가 맞물리면서 에네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연결된 에네켄 기계는 하루에 엄청난 양의 에네켄의 껍질을 벗겨 멕시코의 중심산업으로 자리잡았다.

2. 엔진부

에네켄 기계의 동력은 엔진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엔진은 크게 증기엔진(Steam engine), 디젤엔진(Diesel engine), 가솔린엔진(Gasoline engine), 가스엔진(Gas engine)으로 나눌 수 있다. 한국이민사박물관 엔진은 디젤엔진으로 미국의 부다(BUDA)사에서 만들었다.(도 12)



전면



후면



후면세부



측면

〈도 12〉 엔진부 사진

부다(BUDA)사는 1881년 미국 일리노이주 하비에 설립되었으며, 산업용, 선박용 트럭 엔진을 전문적으로 만든 회사였다. 엔진은 6기통 실린더 디젤엔진(6 cylinde diesel engine)으로 크기가 커서 엔진을 보관하는 공간을 따로 마련하여 에네켄 기계를 운영하였다. 본체부와 엔진부의 연결은 벽면에 구멍을 뚫어서 벨트를 이용해서 연결하여 동력으로 이용하였다.(도 10 디젤 엔진 설치된 모습 참조)

위에서 설명한 본체부와 엔진부의 위치를 건물에 배치해보면 다음과 같다. 엔진은 1층 건물에 본체부는 2층 건물이지만 통층인 건물에 배치되고 두 기계의 연결은 휠로 연결된 도르래 시스템으로 연결 되어 있다.(도 13)



〈그림 13〉 티치몰 아시엔다 에네켄 기계 배치도

IV. 맺음말

한국이민사박물관 소장 에네켄 기계는 이민사의 역사속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유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민의 역사는 20세기초 하와이부터 시작되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멕시코까지 퍼져나간다. 하지만 당시의 이민은 노동력만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많은 고난과 험난한 세상이 펼쳐져있었다. 특히 멕시코는 한반도에서는 겪어보지 못한 환경과 생활 고로 인해 이민의 역사 속에서 아픔으로 남아있다. 한국이민사박물관 소장 에네켄 기계를 통해서 1000명 남짓 떠난 멕시코 한인이민자들의 고단했던 삶을 투영해 볼 수 있으며, 그들의 노동력을 발판으로 멕시코 에네켄 산업이 큰 활황을 가져왔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었다.

한국이민사박물관의 에네켄 기계는 멕시코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진귀한 유물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멕시코 이민의 역사를 재조명하는데 에네켄 기계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 이자경, 『멕시코 한인 이민 100년사 - 에네켄 가시밭의 100년 오딧세이- 上』, 멕시코 한인 이민 100주년기념 사업회, 2006.
- 호세 산체스, 『회상 -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한국인들의 삶과 노동-』, 재외동포재단, 2005.
- 서성철, 「유카탄 에네켄 산업의 역사적 조망-멕시코 혁명 전후시기를 중심으로」, 『중남미 연구』 33-1,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2014.

멕시코 초기 한인 이민사와 에네켄 기계

박영미 한국외국어대학교

I. 들어가는 글

II. 멕시코 초기 한인 이민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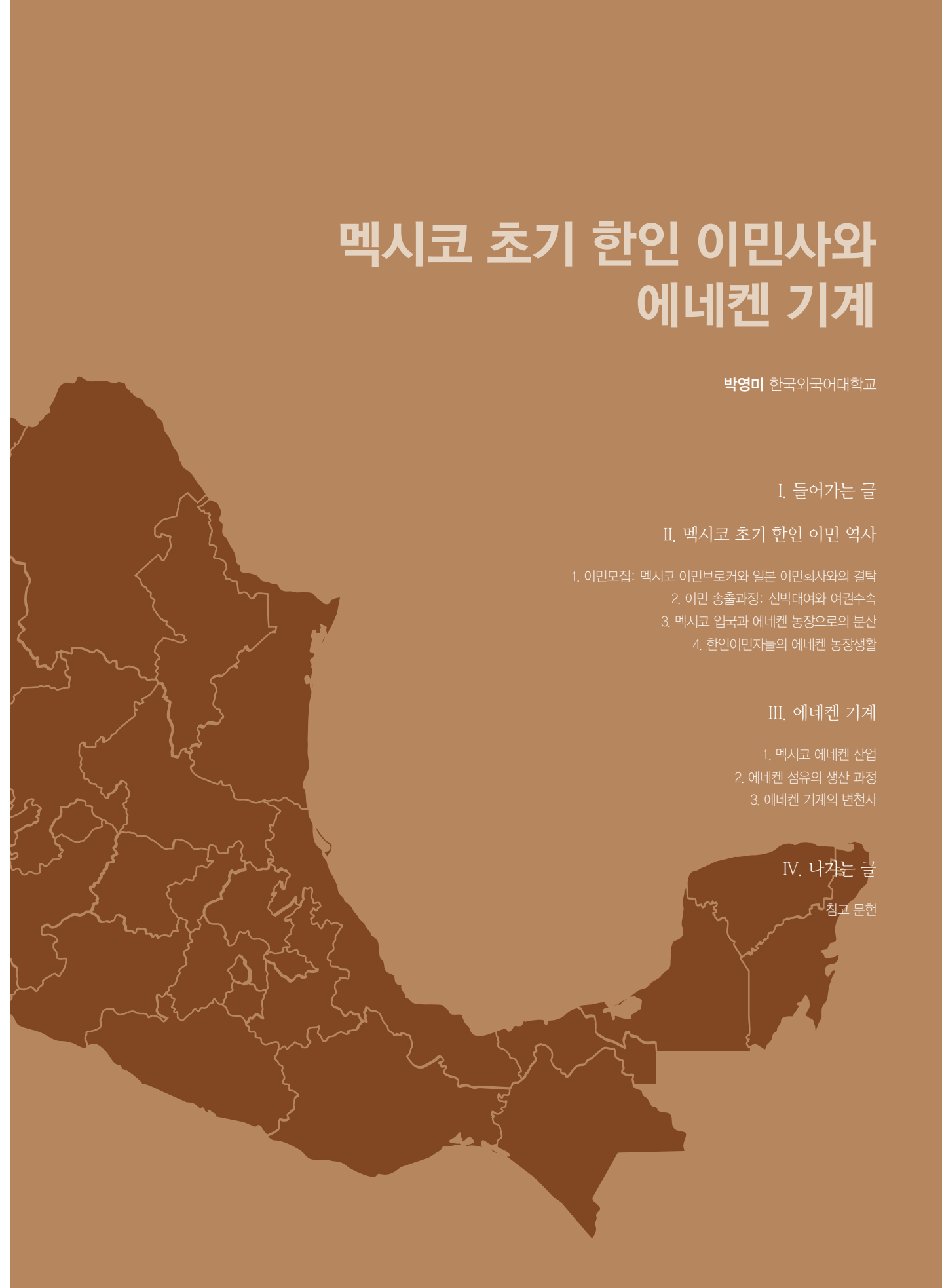
1. 이민모집: 멕시코 이민브로커와 일본 이민회사와의 결탁
2. 이민 송출과정: 선박대여와 여권수속
3. 멕시코 입국과 에네켄 농장으로의 분산
4. 한인이민자들의 에네켄 농장생활

III. 에네켄 기계

1. 멕시코 에네켄 산업
2. 에네켄 섬유의 생산 과정
3. 에네켄 기계의 변천사

IV. 나가는 글

참고 문헌



멕시코 초기 한인 이민사와 에네켄 기계

박영미 한국외국어대학교

I 들어가는 글

멕시코의 한인이민 사회는 보통 2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멕시코 최초의 한인이민그룹인 일명 에네켄 또는 에네켄(HENEQUEN)은 1900년경 메리다(Mérida)를 중심으로 영어로 사이잘(Sisal) 또는 스페인어로 에네켄이라 불리는 선인장 농장에 계약노동 이민을 온 한인들의 후손으로 현재 약 5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으며, 1세대들은 거의 다 사망하고 2~5세대들이 살고 있다. 대다수가 혼혈화가 진행되었으며 현지에 동화됨으로써 대를 이어 한국어나 한국문화가 전승되지 못하고 멕시코인화 되어 정체성이 국외 한인으로 분류된다.

또 다른 형태는 한-멕 국교수립(1962년 01월 26일)과 무역협정 체결(1966년 12월) 이후 비교적 최근에 이주해 온 교민들로, 대부분이 한국에서 의류 및 액세서리 등을 수입해 멕시코 시내에 소매로 판매하며 상업 및 무역에 종사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업종이 다양해져 Zona Rosa 일대에서 식당, 미장원, 슈퍼마켓 및 학원을 운영하는 교민이 늘어나고 있다.(주멕시코 대 한민국대사관 2018년 12월 22일)

이제 우리는 멕시코 한인이민사에서 위에 언급된 두 가지 형태의 한인사회 중 첫 번째 부류의 한인이민자 그룹인 에네켄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다. 1905년 1033명의 한인들이 인천의 제물포 항을 떠나 최초로 멕시코에 4년간의 계약노동을 하러 이민 간 때는 구한 말로,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점점 외교권을 박탈당해가는 대외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기였다. 국내외적으로 불안한 현실을 벗어나 좋은 여건을 찾아서 한인들이 최초로 멕시코로 이민을 떠날 당시에는 이미 1902년 말부터 하와이 노동이민이 시작되었고 지속적으로 하와이 후속 이민이 이루어지며 아메리카 대륙은 한인들사이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굳이 당시에 잘 알려지지 않은 멀고도 낯선 멕시코라는 나라로 대규모 이민을 떠나게 된 것인가? 비슷한 시기에 멕시코로 향했던 이 최초의 한인들이 바로 같은 아메리카 대륙에 있으면서도 한 포기의 풀처럼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진 비극의 주인공들이다.

이 글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지는데, 전반부에서는 1905년 멕시코 초기 한인이민자들이 조선을 떠날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이민 동기, 이민자 그룹을 형성한 사회 계층, 노동이

민의 목적, 이민을 떠나는 과정 그리고 멕시코 입국 과정과 4년의 노동계약기간 동안의 에네켄 농장생활을 중심으로 살핀 후, 계약 종료 후의 삶에 대해서도 간단히 다룰 것이다. 후반부에서는 최초의 멕시코 한인이민자들의 농장생활과 부분적인 연관성이 있는 에네켄 산업의 역사, 에네켄 섬유의 생산 과정, 에네켄 기계 모델의 변천사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지금부터 멕시코 초기 한인이민에 대해 살펴 보기에 앞서, 초기 한인사 연구 단계에서 서로 다른 출처들로 인해 정확한 한인이민자 수와 출항일, 멕시코 도착 일자 및 도착 경로 등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사료나 객관적인 시각에서 조명된 분석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II. 멕시코 초기 한인 이민 역사

1. 이민모집 : 멕시코 이민브로커와 일본 이민회사와의 결탁

1905년 벌어진 최초의 대규모 멕시코 한인이민 사건은 이민모집부터 멕시코에 도착하여 에네켄 농장으로 분산 되는 순간까지 멕시코 대표 국제이민브로커와 일본 이민회사인 대륙식민합자회사의 결탁으로 이루어진 국제 이민사기단의 합작품이다. 멕시코 유카탄 에네켄 농장주 협회 대리인 자격으로 파견된 이중국적(네덜란드-독일계 영국인이며 멕시코 국적 소유)을 가진 국제이민브로커 존 마이어스(John G. Myers)는 본격적으로 중국과 일본인 이민자들을 모집했으나 멕시코 이민의 나쁜 평판으로 인해 모집에 실패하고 일본에 머물고 있었다. 거기서 그는 당시 일본에 본부가 있고 한국지부에서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와이 이민을 알선하던 이민회사인 대륙식민합자회사의 대표인 히나타 데루타케(Hinata Terutake)를 알게 되었다. 그는 마이어스에게 중국, 일본의 대안책으로 한국을 암시하며 서울지부에 파견된 직원인 오바 케니치(Oba Kenichi)를 소개했고 1904년 8월 한국에 들어온 마이어스는 오바를 만나 멕시코 한인 이민노동자 모집을 위임했다. 마이어스와 오바는 서울에 총대리점을 두고 한인통역 이준혁과 서무 겸 통역인 권병숙을 고용해 10월 15일부터 본격적인 사기이민의 흥계를 꾸미기 시작한다. 이 둘은 서울, 인천, 부산, 목포 등 개항지를 중심으로 전국의 주요 항구도시에서 이민모집 지방사무소를 개설하고 대대적인 이민모집 광고를 냈으며 마이어스는 대도시 거주자들을 겨냥해 멕시코에 한인노동력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가족단위의 이주를 권고하는 동시에 4년간의 계약기간 동안에 제공될 높은 보수와 여러가지 편의에 대해 신문에 대대적으로 허위·과장 선전하면서 멕시코 한인이민모집의 막을 올린다.(Paek, Pong Hyon 1968: 25-26)

이들은 1904년 12월 17일부터 1905년 1월 13일까지 7차례 황성신문에 한자로 멕시코 한인

이민모집 광고를 싣고 6개 지역에 이민 대리점을 설치하며 전단이나 방을 통해 공개적으로 이민자들을 모집한다. 특히 외국문물을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서울을 중심으로 인천, 부산, 목포와 같은 개항지에서 대부분의 노동자들을 모집했으며 전국적으로 18개 지역에 걸쳐 골고루 모집했으며, 7차에 걸쳐 황성신문에 게재된 내용으로 일본 이민회사의 과대한 허위선전은 한인 노동자들을 현혹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사실 한인들이 전국에 걸쳐 멕시코 이민모집에 응한 이유는 당시 주권이 흔들리고 있는 조선의 대외적 위기와 국내 전반의 불안한 사회-경제적 상황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외적으로 1876년 대한제국이 일본에 의해 강제로 문호를 개방한 이래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본격적인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치열한 외세 각축전이 벌어졌다. 청일전쟁(1894-95)에서 승리한 일본은 러일전쟁을 시작하며 한일 의정서(1904.2.23)를 체결하고 이어 6개월 후에 제1차 한일협약(1904.8.22)을 체결함에 따라 재정고문 메가타 다네타로와 친일파인 외교고문 스티븐스를 부임시키며 일본의 고문정치를 시행하였다. 이 고문정치는 1905년 11월 일본이 을사보호조약 체결을 통해 조선의 외교권을 완전히 박탈하기 위한 전야제라 할 수 있다. 동시에 국내에서는 기근과 같은 자연재해, 심각한 가난, 탐관오리들의 부패, 정부의 억압 등의 혼란이 초래되었다. 일부 한인집단은 이런 상황을 벗어나 안정과 번영이 보장되는 더 나은 곳을 찾아 외부로 떠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서정철 2004: 49)

멕시코 이민모집이 전국에 걸친 호응을 받은 또다른 이유는 1902년부터 시작된 하와이 이민의 성공사례가 이미 사람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지방에까지 알려져 있던 듯하다. 대륙식민합자회사는 단시일 내에 한인이민자들을 모집하기 위해 멕시코가 아메리카에 있는 미국과 다름없는 곳이라며 해외지식에 무지한 이들에게 하와이 이민을 사칭하였고 계약내용을 잘 모르는 빈곤층에게 150원의 선금을 미끼로 건네며 쉽게 노동계약을 맺도록 교묘한 술책을 썼다. 이에 현혹된 한인이민자들은 4년간 유카탄에서 일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한국어와 영어로 쓰인 노동계약서에 서명하게 된다. 동시에 이런 현상은 일본 대륙식민합자회사의 이민모집활동이 이렇게 한반도 전역에 걸쳐 공식적으로 이루어질 만큼 일본의 대한제국 침략이 본격화 되어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이종득 2005: 39-41)

이 때 모집된 모든 한인이민자 수와 남녀 구성비율에 대해서는 이민사 자료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인천에 주재하던 일본영사 가토의 보고서는 영사업무를 통해 대륙식민합자회사로부터 받은 자료이므로 상당히 신뢰할 만하다. “1,033명 가운데 남자가 702명이고 여자가 135명 어린아이가 196명이었다. 또한 독신이 196명인데 비해 나머지는 257개 가족으로 구성되어 가

족이민이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었다.”(이종득 2005: 33) 가토의 보고서에 따르면, 초기 멕시코 한인이민은 가족단위의 이민자모집에 역점을 두며 진행되었다는 점을 알 수가 있다. 그 이유는 이전에 멕시코 유카탄 농장주들이 중국과 일본에서 이민자들을 모집했을 때, 독신의 비율이 많았던 경험을 통해, 상대적으로 가족이 함께 한다는 심리적인 안정감 속에 노동력을 유지하기가 쉽고 농장에서 탈출하려는 시도가 드물며 가족 전체가 다 노동에 참여할 수 있는 가족이민을 선호하는 농장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모집된 한인이민자들의 직업이나 신분에 대해 분석자료가 미흡하지만 대략적으로 파악한다면, 약 200여명의 퇴역 군인들이 수적으로 우세하고 대도시로 이주한 많은 소작인들, 왕족, 전직하급관리나 양반계급과 같은 소수의 인텔리들, 해외선교사들에 의해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 또는 가난에 찌들은 노동자, 부랑아, 걸인, 무당 등등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Patterson 1983: 3) 경제적인 궁핍으로 인해 빠른 시일 내에 부를 이루어 조국으로 금의환향하려는 대부분의 사람들, 신문물을 접할 수 있는 더 나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찾는 이들, 종교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 일본의 간섭과 통제 하에 있는 조국의 해방을 이루고자 하는 애국자들 등 여러 다양한 동기로 한인이민자들은 당시 “묵서가”라 불리던 멕시코로 4년간의 노동이민을 떠난다.

2. 이민 송출과정 : 선박대여와 여권수속

다음 단계는 모집된 한인 이민자들을 송출하는 문제였다. 멕시코 이민사건의 핵심요소의 하나인 여권발급에 대한 가장 우세한 가설에 대해 Romero Castilla는 처음에 마이어스가 여권허가를 받기 위해 사적 심의 기관인 중추원을 찾아갔으나 한국과 일본 정부의 고위관직자들 사이에 일어난 충돌로 인해 여러 난점에 부딪히며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 전략으로 일본 모지 항에서 선박을 대여하며 집요하게 2차 공작을 편다고 의견을 제시한다.(Alfredo Romero Castilla 1997: 142-143) 마이어스는 한인이민자들의 전대금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3월 14일 일본 모지 항에서 영국 상선 일포드(San Ilford)호를 대여한 후, 먼저 부산에서 400명의 이민자들을 태우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승선지인 인천항으로 가 남은 이민자들을 승선시킨 후 그곳을 떠나려 했으나 한 어린이가 배 안에서 수두가 걸리자, 영국공사 존 고든 경이 일포드호에 2주간의 정박명령을 내리며 한인이민자들을 격리 수용시켰다고 한다.(Patterson 1983: 3-4)

여권발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이어스는 인천이 여권허가 받기에 이상적이라 판단하여 친분이 있던 존 고든 경에게 도움을 요청하나 고든 경은 마이어스가 불법이민을 취급함을 간

파하고 개입을 꺼려해 그를 대한제국 정부와 친분이 깊은 프랑스 공사 블랑쉬에게 소개한다. 결국 해결사로 나선 블랑시가 한국정부로부터 여권허가를 받아준다.(김원용 1959: 15)

그런 와중에 정확한 출발일을 알지 못하고 인천 부두에 격리수용되어 있던 친척, 친구들을 방문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 노예이민일지 모른다는 부정적인 소문이 퍼지게 된다. 그렇지만 결국 한국정부의 무능한 외교정책으로 인해 1905년 4월 4일(출항일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나, 신빙성이 높은 통감부 문서인 1905일 3월 29일 발송한 가토가 고무라에게 보낸 공문과 마이어스가 동경의 히나타 테루다케에게 보낸 11장의 편지에 근거함) 한인들이 대거 일포드호를 타고 제물포항을 떠난 후, 그 소문을 접하게 된 대한제국정부는 자국민 보호라는 명목으로 모든 종류의 이민을 금해버린다.(Patterson 1983: 24-31) 원칙적으로 한국정부는 계약노동을 불법으로 취급하고 있었는데, 멕시코 이민의 경우에 노동계약서를 작성한 약정행위가 이루어졌으며 당시 멕시코와의 국교가 없었던 외교적 상황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한인들의 여권발급에 큰 어려움을 주었다. 하지만 마이어스의 갖은 권모술수에 의해 결국 여권은 발급되었고 멕시코 초기 한인이민의 아픔으로 점철된 역사가 시작되었다.

3. 멕시코 입국과 에네켄 농장으로의 분산

여권발급을 받은 후 멕시코를 향해 조국을 떠난 한인이민자들은 일본의 요코하마에서 영국의 엘보트(El Boat)호로 배를 갈아타고 1905년 5월 15일 경 우기에 살리나 크루스 항에 도착했다고 한다.(Romero Castilla, Alfredo 1997: 146) 41일간의 항해 끝에 원래의 1,033명 중 2명이 죽고 1031명이 멕시코에 도착했다는 설이 있다. 드디어 멕시코에 무사히 입국한 한인들은 멕시코 남단에 위치한 살리나 크루스(Salina Cruz)항에 하선하여 간단한 이민국 검사를 거친 다음 거기서 여러 날 동안 기차를 타고 테우안테펙(Teuan-tepec) 지협철도로 베라크루스(Veracruz)주에 있는 멕시코 만의 남쪽 관문인 코앗사코알코(Coátzacoalcos)에 도착한다. 거기서 멕시코 만을 따라 다시 유카탄 반도의 동북단 항구인 프로그레소(Progreso)항을 향해 배를 타고 가야 했다. 프로그레소 항에 도착한 한인들은 최종 목적지인 유카탄(Yucatán) 주의 수도 메리다(Mérida)로 옮겨진다.

한인들이 멕시코의 첫 하선지인 살리나 크루스 항에 도착해서부터 마지막 하선지 유카탄의 프로그레소 항에 도착한 날짜들이 정확하진 않지만, 최소한 프로그레소 항에 도착한 날짜에 관련해 메리다의 일간지인 Revista de Mérida 5월 15일자에 실린 “우람하고 건강한 체구의 한국인들의 도착(La llegada de los coreanos, son robustos y con aspecto de buena salud)”이라는

제목 기사의 날짜를 참고할 수 있다. 기사는 1,000여명의 한인들이 프로그레소 항에 5월 14일 일요일 오후에 하선하여 기차를 타고 밤 11시에 메리다 시에 도착했다고 보도한다. 이런 정황으로 미루어 처음 멕시코 도착지인 살리나 크루스 항에는 14일 이전에 도착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1세대 한인이민자 임천택은 〈쿠바이민사〉에서 “인천에서 출발한 지 30여 일 만에 지루한 항로를 건너 별 장애 없이 북국 ‘살리나 구르스’에 도착하여 이민국 검사를 거쳐 다음 ‘유카탄 부로그레스’ 항에 상륙하니 때는 5월 15일(음 4월 16일)이었습니다. ‘유카탄’도 수부 ‘메리다’에 도착하여 5~6일 지나서 식민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어저귀 농장으로 몇 십 명씩 각각 헤어져서 노예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당시의 상황을 증언한다.(임천택 1945: 4-5)

여러 한인이민사 자료들에 의하면, 초기 한인이민자들이 도착한 당시, 에네켄 농장의 규모는 각각 달랐고 배치된 한인들의 수도 제각각이었다고 한다. 한인이민자들은 22개(Patterson 1983: 14-15) 또는 25개(Paek, Pyong Hyon 1968: 28) 농장으로 10명에서 50명씩 분산되어 4년간의 계약노동기간 동안 노예처럼 혹독하게 노동했다고 한다. 호세 산체스 박의 증언에 의하면, 22개의 농장은 첸체(Chenche), 아스꼬라(AZ-Kora), 수 꾸(Zu-Ku), 부에나비스타(Buenvista), 친킬라(Chin-Ki-La), 띠시민(Ti-Zi-Min), 산 엔리께(San Enrique), 사실(Za-Cil), 산 후란스꼬(San Francisco), 산띠아고(Santiago), 깡깡첸(Kan-Kap-Chen), 꾸까(Ku-Ka), 노헤용(No-Ge-Yong), 잇신깡(It-zin-Kab), 산 안토니오(San Antonio), 산악타(San-Ak-Tah), 춘추꾸밀(Chun-Chu-Ku-Mil), 얄체(Yaz-Che), 초촐라(Cho-Cho-La), 꼬오펜까(Ko-Hop-Cha-Ka), 산타 로사(Santa Rosa), 떼모존(Temo-zon) 농장들이었다.(호세 산체스 박 1973: 65-55) 유카탄에 도착한 한인노동자들은 에네켄농장 이외에도 일부는 황무지를 개간하는 곳과 벌목하는 곳, 그리고 시멘트 광산으로도 보내졌다. 돈을 많이 낸 순서로 농장주들이 건강한 사람들을 골라서 데려갔기 때문에 가족 간의 생이별이 생긴 경우도 있었다.

초기 멕시코 이주 한인노동자들이 4년간 생활하며 노동했던 장소는 스페인어로 ‘대농장’을 뜻하는 아시엔다(hacienda)이다. 아시엔다 제도는 스페인 식민 시대의 유산으로 본래 16세기 말 이래 스페인 왕이 정복자들에게 원주민들을 ‘위탁’해 가톨릭을 전파하는 댓가로 토지와 원주민들의 노동력을 사용하도록 허가해 준 엔코미엔다(Encomienda) 제도에서 점점 발전한 형태이다. 아시엔다 제도는 농장주에게 채무를 지어 농장에 예속된 일용직 노동자(peón)가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농장제이다. 19세기 말부터 아시엔다 제도는 급격하게 발전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당시 대통령이던 포르피리오 디아스라는 악명 높은 독재자가 장기 개발독재(1876-

1911) 하에 외국자본에만 의지하여 철도, 도로, 항만 등의 국가 기반산업 시설을 구축하며 근대화를 꾀했을 뿐만 아니라 소수의 지주계층에게 특혜를 주는 편파적인 토지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농촌의 근대화’를 명분으로 토지등록제를 실시하여 법에 무지한 농민들의 토지를 대거 몰수하여 지주계층에게 “몰아주기” 하였다.(전용갑 외 2018: 344-346) 디아스 대통령은 대농장제를 통해 각 지역의 특성에 따른 수익성 플랜테이션 농업을 육성했는데, 그 중 하나가 1880년대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던 유카탄의 에네켄 산업의 육성이었다. 에네켄 산업은 노동집약형 산업이기에 이를 감당할 막대한 노동력을 필요로 하였으나, 여러 요인들로 노동력 위기에 처하게 되자 1891년 중국인 노동자들을 대거 유카탄에 유입하여 필요한 노동력을 충당시킨다. 후일 이 곳에 1030여 명의 최초의 한인이민자들이 유입된다.

4. 한인이민자들의 에네켄 농장생활

유카탄 주에 막 도착한 한인이민자들이 마주하게 된 현실은 지상낙원과는 거리가 먼 40~50도에 달하는 유카탄의 살인적인 기후였고 멕시코에서 이행될 계약노동의 임금과 노동조건도 대륙식민합작회사가 내걸었던 이민 모집광고와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었다. 한인들은 메리다에 도착하여 각 농장으로 분산될 때 각 농장주들과 그들의 의지와 무관한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새로운 계약을 다시 맺어야 했다. 황성신문에 게재된 광고와 새로운 계약서 사이에 드러나는 큰 차이점은 하루 9시간 노동의 시간제가 아닌, 할당된 작업량을 완수해야 노임(멕시코 1페소 30센타보, 한화 2원 60전~6원)이 지불되는 실적 중심의 임금체계였다.(이종득 2005: 46)

한인노동자들이 일하게 된 농장에는 거대한 에네켄 밭이 있었는데 에네켄은 선인장과에 속하는 식물로 우리말로 ‘용설란’, ‘어저귀’라 한다. 높이가 2미터 이상이고, 5~6년 정도 자라면 에네켄 앞에서 섬유를 얻을 수 있으나, 15-25년 정도 되면 수명이 다한다. 당시 에네켄 농장에서 일하던 한인들의 주된 노동은 폭염 아래서 마체테라는 낫처럼 날이 큰 칼을 사용해 두껍고 날카로운 가시가 잔뜩 달린 에네켄 잎의 단단한 밑동을 베어낸 후, 뽕죽하고 두꺼운 가시를 제거하고 잘려진 잎사귀들을 50개씩 묶어 한 다발을 만드는 일이었다. 이런 위험하고 힘겨운 노동에 대해 이민 1세대인 호세 산체스 박은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일하기 시작한 첫날부터 우리들은 손이 엉망이 되었는데, 특히 왼손은 에네켄 가시나 가시덤불에 찔리고 굵혀 피가 멈출 날이 하루도 없었다. 발부분도 마찬가지로었는데, 즉 발가락부터 무릎까지 온통 가시에 찔려 항상 몸이 엉망진창이 됐으며, 가시에 엉겨붙은 채 집에 돌아와서는 가시를 빼고 상처를 만졌다. 우리들이 집에 돌아와서 유일하게 서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얼굴 밖에 없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머리엔 항상 밀짚모자를 덮어썼고, 온 몸은 장갑이나 각반으로 가렸기 때문이었다.”(서정철 2004: 51-52 재인용)

이런 힘든 노동 외에도 매일같이 성인 남성들에게 주어진 작업 할당량은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이었기에 에네켄 따는 일을 돕기 위해 부인들과 아이들까지 동원되었다. 게다가 농장생활 초기에 한인노동자들의 감독을 맡은 멕시코 십장들은 한인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행동이 느리다고 채찍을 휘둘러댔다.(김원용 1959: 12) 이런 상황 아래서 도주를 시도하는 한국인들이 속출했지만, 농장주들의 도망 방지책은 매우 엄준해서 한인들 중에 도망자가 있다고 하면 각 농장주들은 연합하여 추적대를 구성해 도망자를 붙잡아 토굴이나 감옥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한 후, 아침에 본보기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가죽 채찍으로 12대를 세차게 내리쳤다. 당시 멕시코에는 일반법과 농장법 2개가 공존했는데, 계약노동을 맺은 한인노동자들에게는 농장법이 적법으로 통용되어 농장주들이 더욱 한인들을 억압, 착취, 폭행의 대상으로 삼았다.(이종득 2005: 42, 47) 결국, 단시일 내에 부자가 될 줄 알고 멕시코에 온 한인들은 많은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며 10여명의 한인이 자살했고 농장생활 초기에 22명이 사망했다. 또한 파업과 같은 집단 행동을 벌이기도 했다.

4년간의 계약노동기간 동안 한인노동자들이 받은 임금은 에네켄 농장마다 다소 차이가 있었다. 하루 새벽 3시 반~4시에서 저녁 무렵까지 보통 12시간이 넘는 노동을 하고 거기다 가족까지 동반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한국인은 하루 8,000원에서 많게는 15,000원까지도 땀다고 한다. 10,000원을 땀을 경우 2,000원에 25전 잡고 하루 약 1원 25전을 받을 수 있음으로 생계 유지가 가능한 정도의 월급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김기현 2005: 76-77). 유카탄을 방문했던 재미교포 박영순의 기록에 따르면, 유카탄의 동포들이 낮이면 불같이 뜨거운 가시밭에서 채찍을 맞아가며 일하고 밤이면 토굴에 들어가 밤을 지내며 매일 품값으로 35전씩 받으니 의복은 생각할 여지도 없고 겨우 죽이나 끓여서 연명할 뿐으로 그 처지가 농장주인의 개만도 못하다고 했다. 농장이 식료품 값으로 각 사람에게 매일 25전씩 받고 주는 것은 백미 2홉과 떡 9조각과 1종자와 짜드라 1종자라고 했다.(Kenneth Turner 1985: 26)

에네켄 농장(hacienda)은 마치 자치 도시와 같은 기능을 갖고 있었는데, 아시엔다 자체 내에 교회, 묘지, 병원, 학교, 감옥 등을 갖고 있었고 아시엔다 내에서만 통용되는 동전을 제련했다. 노동자들은 아시엔다에서 그 지역의 돈으로 임금을 받고 스스로 먹고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을 구입해야하고 임대료도 내야했다. 아시엔다를 떠날 권리가 없었고 아시엔다 밖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동전으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농장 밖에서 생활 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한인노동자

들은 생필품을 외부보다 훨씬 고가로 팔며 가난한 노동자들로 하여금 외상으로 물건구입을 강요해 고리대금의 이자를 갚도록 하면서 대부분의 아시엔다에 사는 원주민들을 세대를 거쳐 부채노예로 전락시키는 아시엔다 제도의 구조적인 탓에 걸리지 않고, 한인들의 강인한 생활력과 성실성으로 부채노예의 굴레에서 벗어났다.(이종득 2005: 45-46)

드디어 1909년 5월, 4년간의 계약노동에서 풀려 난 한인들은 더 좋은 일자리를 찾으려 유카탄 반도와 티후아나를 중심으로 멕시코 전역으로 흩어지지만 대부분이 유카탄 반도로 다시 돌아와 농장과 재계약을 맺고 에네켄 앞 자르는 일에 다시 종사하게 된다. 한국으로 돌아갈 여비도 마땅치 않았고, 농장 밖의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고 스페인어 뿐만 아니라 현지 마야어도 몰랐으며 멕시코 문화와 그들의 생활 습관도 생소했던 한국인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스페인어나 영어를 할 줄 알았던 1.5세 한국인들은 농장주와 한인노동자들을 연결해주는 노동주무원이라는 계약알선업자 일을 시작했다. 비록 이전과 같은 학대 및 강요는 없었다 하더라도 한국인 노동자들은 저임금에 계속 시달렸고 중노동으로 고통을 당했다.

이전부터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있던 대한국민회 및 기타 재미 한인단체들은 유카탄 반도의 동포들의 참상 소식을 듣고는 그들을 구해낼 생각에 유카탄의 한인들하고 접촉, 연락을 취하기 시작한다. 국민회 메리다 지방회는 1909년 5월 9일, 로스앤젤레스에 본부를 둔 재미동포 대표기관인 대한국민회가 파견한 방화중과 황사용 2명의 대표를 받아들이면서 설립되었다. 메리다 한인회는 설립 때로부터 다양한 활동을 통해 1960년경 폐쇄될 때까지 50년간 유카탄 한인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다. 한인1세대들은 한민족의 언어와 유교적 전통문화를 유지하려 차세대의 한글교육을 담당할 한글학교를 설립 및 운영했고 특히 일본에 나라를 빼앗긴 후부터는 조국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1910년 한일합방 후 3개월 만에 일본 규탄 시위를 메리다에서 벌였고, 항일운동의 준비단계로 승무학교를 설립하며 독립운동을 벌였다. 1917년 안창호 선생이 유카탄을 방문하는 등 활기를 띠어 갔지만 유카탄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한인회 활동이 축소되었다. 특히 1921년 288명의 한인들이 더 나은 일자리를 찾으려 쿠바로 떠나며 메리다 한인회는 더욱 침체해 갔다.(서정철 2004: 54-56)

1차세계대전이 끝난 후 쿠바에 사탕수수 붐이 일자, 1921년 288명의 한인들이 당시 이화룡이라는 계약 알선업자를 통해 마나티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의 농장주들과 계약을 맺고 멕시코에서 쿠바로 이주했다. 그러나 불운하게도 같은 해에 국제 설탕가격이 폭락하면서 한인들은 사탕수수 농장의 일자리를 잃었고 또 다시 한인들은 쿠바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많은 한

인들이 마탄사스로 이주해 멕시코에서 하던 에네켄 잎을 자르는 일에 종사하게 되었다. 그 후 마탄사스 농장지역은 쿠바한인들의 근거지로 자리잡게 되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한인후손들이 살고 있다. 이후 생활수준이 나아지면서 마탄사스뿐만 아니라 카르데나스, 그리고 아바나 지역으로 한인들이 퍼져나가게 되었다. 1921년 마탄사스 이주 얼마 후 한인들은 메리다 지방 회처럼 대한국민회 쿠바지부로서 그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쿠바 지방회를 만들었다. 당시 쿠바 지방회가 펼쳤던 주요사업으로는 조국광복사업, 교육사업, 구제사업 등이 있었다. 또한 쿠바의 한인들도 멕시코 한인회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삶 속에서도 조국의 해방에 깊은 관심을 갖고 독립운동을 벌였던 열렬한 애국심이 높이 평가된다. 당시 쿠바의 한인들은 쿠바 국민회의 이름으로 1937년부터 1945년 해방되기까지 조국광복을 위해 독립자금을 모아 미국의 국민회 본부와 독립자금 명목으로 아바나 소재 중국은행을 통해서 중경의 임시정부에 보내기도 했다.(서성철 2004: 56-57)

III. 에네켄 기계

1. 멕시코 에네켄 산업

에네켄 잎의 껍질을 벗겨내면 그 안에 질기고 탄력 있는 섬유가 짝 차있는데, 마야어로 ‘쑈스킬’ 또는 영어로 ‘사이잘’이라고 부른다. 19세기 후반 에네켄 산업의 번성기에 멕시코 유카탄 반도 북서해안인 사이잘(Sisal) 항구에서 모든 사이잘 삼 제품에 항구이름이 찍혀 세계 각국으로 떠났기 때문에 사이잘 삼이라고도 부른다. 에네켄의 섬유로 만든 제품은 내구력이 강해 오랜 기간 동안 육중한 무게를 잘 지탱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데, 특히 에네켄 삼실을 사용한 포대는 운송 중에 포대 안에 담긴 제품을 잘 보존하여 항해 및 원자재 운송 모두에 적합하다는 평판이 났다. 그 밖에 선박용 로프와 아마카 또는 양탄자, 식탁보, 샌들 등을 생산해 낸다.

19세기 유카탄 반도에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 주었던 에네켄 섬유의 사용은 이미 고대 원주민 문명 시기에 기원을 두고 있다. 마야 전설에 따르면, 에네켄은 우주의 창조자인 ‘신성한 존재’라는 후납 쿨의 신성한 아들이며 ‘이사말(Izamal)’의 창시자인 ‘잠나(Zamná)’ 또는 ‘이참나(Itzamna)’에 의해 발견되었다. 뛰어난 지혜로 존경받는 이참나는 또한 항상 들판에서 약초를 수집하는 재능있는 치유자였다. 어느 날 그는 짙은 갈색 가시가 뾰족하게 난 딱딱한 창 모양의 잎이 달린 식물에 손을 댔다. 그러자 그 식물은 두텁고 뾰족한 가시로 이참나에게 마구 상처를 입혔고 신하 중 한 명이 분노하여 그 식물을 돌로 치기 시작했다. 정신을 차린 이참나

는 으스스한 잎사귀와 구타를 견디고 살아남은 그 흰색 섬유를 보기 위해 멈추었다. 이렇게 henequén 또는 ki를 발견하게 된 이참나는 그날부터 신하들에게 그 식물을 재배하기 시작하라고 명령했고 이에 마야인들은 에네켄에서 나는 섬유로 노끈, 바구니, 매트 및 샌들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고 한다.(Fernández Noa, Yurina, Yucatán Today)

멕시코의 남동부에 위치한 유카탄 주는 에네켄 재배로는 가장 적합한 토양과 기후조건을 갖추고 있다. 고온다습의 저지대로 섭씨 40~50도를 오르내리는 살인적인 기후인데 특히 지층이 얇아 에네켄을 재배하기에 이상적인 지역이다. 그러나 에네켄 산업은 대규모의 집단 노동인력을 필요로 하기에 1825년 유카탄 주의 새로운 토지법에 따라 마야인들을 부채노예로 묶기 시작하면서 에네켄 재배가 활기를 띠게 되었다. 1833년 유카탄 최초의 에네켄 농장이 설립되며 최초로 에네켄 농업에 수익성 단일작물을 대규모로 재배하는 플랜테이션 방식이 도입되었다. 1846년 에네켄은 유카탄의 대표적 생산물 중 하나가 되었고 동시에 가장 많은 노동력을 고용하는 사업이 되었다. 그러나 1847년 오랜 기간 심하게 착취를 당하던 마야 원주민들의 반란으로 백인과 마야인들 간에 피비린내나는 카스트 전쟁이 발발하여 8년간 지속되었다. 그 결과로 유카탄 인구가 급감하였으며 원주민들에 대한 농장주들의 불신으로 유카탄 반도 에네켄 산업의 발전과 맞물려 노동력의 만성적 부족 현상을 초래했다. 결국 카스트 전쟁을 계기로 유카탄 주정부가 에네켄 사업에 적극 개입하게 되었고 1855년 카스트 전쟁의 여파로 원주민 강제노동 금지법을 만들었으나 카스트 전쟁의 위협이 줄어들고 에네켄 산업 발전으로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1868년 유카탄 정부는 원주민 강제노동법을 다시 허용했다. 이로써 농장주는 노동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채무에 의해 노동자들을 농장에 예속시켰다.(김기현 2005: 78-80) 결과적으로 1851년에서 1880년 사이에 에네켄 산업은 본격적인 발전 궤도에 올랐다.

또한 19세기 후반에 에네켄 산업이 ‘붐’을 맞게 되는 또다른 계기는 외국 회사들의 관심과 해외 수요의 급증 때문이다. 농업혁명을 이룬 미국 맥코믹(Cyrus Hall McCormick)사가 말 대신 기계로 움직이는 수확기를 발명하여 밀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했을 때, 생산된 밀을 포장하는 포대에 기존의 철사 대신 에네켄에서 추출한 밧줄을 사용하며 에네켄에 대한 해외수요가 증가하면서 유카탄에서 수출이 본격화되었다. 또한 인터내셔널 하비스터(International Harvester)와 같은 외국회사들이 유카탄 에네켄 산업을 독점하였는데 이 외국 회사들은 에네켄 농장주들 그리고 그들에게 긴밀히 협조하는 유카탄 주정부와 연합하여 에네켄 가격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시했다. 그래서 유카탄 주정부의 악법 허용과 농장주들의 전횡으로 노예제와 같은 열악한 노동조건도 발생했다.(김기현 2005: 73-74)

이렇게 19세기 말 에네켄은 유카탄 지역 사회와 경제를 변화시켰는데, 유카탄에서 에네켄 산업은 막대한 부와 극심한 빈곤이라는 두 가지 극단적인 형태로 발전되었다. 소수 백인 지주들은 막대한 재산을 만들어 미주에서 가장 부유한 층에 속했던 반면, 대다수의 마야인들은 에네켄 생산의 주체에서부터 에네켄 농장에 예속된 노예로 전락하며 농장주들의 학대, 착취 및 노골적인 절도의 대상이 되었다. 멕시코 혁명의 영향으로 에네켄 붐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했지만 그 효과는 에네켄이 ‘그린 골드(green gold)’라는 별명을 얻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결국 1870년 말에 전성기가 시작되며 1929년 위기 전까지 멕시코산 에네켄은 질긴 섬유분야의 세계시장을 독점하였으나 20세기 초까지 100%를 과시했던 시장점유율이 1915년 87%, 1929년 44%로 감소하며 특권의 자리를 상실하게 되었다.(Kuntz Ficker, Sandra 2010: 237) 곧 동 아프리카, 쿠바, 푸에르토리코, 바하마, 플로리다, 브라질 등지의 경쟁자가 급부상하며 에네켄 산업은 사양길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2. 에네켄 섬유 생산 과정

에네켄 농장에서 섬유 생산 과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맨 먼저, 에네켄 밭에서 노동자들이 에네켄 잎을 잘라 다발로 묶는 일을 한다. 그 다음, 농장의 십장들로부터 이상 유무를 검사 받은 후, 다른 일꾼들이 노새가 끄는 무개화차(직경 60센티미터의 레일위로 움직이는 화차)로 섬유가공 공장 창고까지 에네켄 다발을 운반한다.(서성철 2004: 50) 공장에서 에네켄 다발은 에네켄 잎을 압착해서 섬유를 뽑아내는 기계들에 의해 가공 또는 분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

공장에서 사용되는 엔진제품이나 섬유를 추출하는 기계제품은 아시엔다에 따라 종류가 다양해 보인다. 사실상 에네켄 산업의 발전은 에네켄 기계를 작동시키기 위해 엔진을 사용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처음에는 영국이나 미국에서 수입한 증기엔진을 사용하였고 그 뒤를 이어 독일, 영국, 미국 산 가스엔진을 사용하다가 이후로 저속, 중속, 고속 등 다양한 속도의 디젤엔진을 사용하다가 마침내 현재는 전기엔진을 사용하고 있다. 초기의 증기엔진 시절에는 증기엔진을 사용하면서 나오는 연기를 처리하기 위해 굴뚝을 높이 설치하였는데, 디젤엔진이나 가스엔진을 사용하면서부터 높은 굴뚝은 그냥 에네켄 농장의 상징적 장식품에 불과하게 되었다.(Haciendas Mexicanas)

공장에서 진행되는 에네켄 섬유 가공 또는 분리 과정은 생산 설비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난다. 테모존(Temozon) 농장의 경우에는 에네켄 농장에서 운반해온 에네켄 다발들을 1층에서 에네

켄 리프트(elevador)에 올려 2층으로 끌어올린다. 2층은 기계 부서로, 엔진을 가동하여 기계를 움직이기 위해 도르래를 이용하는 도르레 시스템이 작동된다. 주로 기계 부서에서 진행되는 단계는 섬유를 뽑는 기계(desfibradora)로 이동 및 섬유추출 및 세척 작업이다. 20세기 초에 가장 큰 에네켄 농장 중 하나였던 야스코포일(Yaxcopoil) 농장의 기계식 수확실의 경우에는 먼저, 채취한 에네켄 잎을 자동으로 섬유뽑는 기계쪽으로 옮기는 급업판을 거친 후, 두 개의 대형 원형통으로 된 섬유뽑는 기계를 거쳐 에네켄에서 삼실을 추출해낸다. 첫 번째 대형 원형통은 에네켄 잎의 껍질을 압착시켜 섬유를 뽑아내는 추출 과정을 담당하고 두 번째 대형 원형통은 추출한 섬유를 세척하는 작업을 한다. 그 외에도 에네켄에서 삼실을 추출하는 순간에 섬유 뽑는 기계 아래에 설치된 대형 찌꺼기 통(bagazo)에 떨어지는 에네켄 잎 건데기와 즙과 같은 부산물을 나중에 한 곳에 모아 운반하는데, 즙은 선인장 술을 만들고 건데기는 목축의 사료나 농작물의 비료 등으로 사용된다. 최종 가공 작업은 건조 단계로, 추출된 삼실을 야외의 건조장으로 옮겨 긴 줄에 널어 햇볕에 3~4시간 말린다. 그 후 마른 삼실은 운송을 위해 압축기를 거쳐 큰 묶음으로 압축된다.(El financiero dic 29, 2018)

3. 에네켄 기계의 변천사

에네켄 산업의 역사를 보면, 19세기에 에네켄은 유카탄 반도에서 가장 뛰어난 생산품이었지만, 사실상 1861년까지 에네켄 삼실은 손으로 추출되어 무역을 위한 대규모 생산이 어려웠다. 이전에는 마야 원주민들이 100% 수작업에 의거한 ‘톤코(tonkos)’와 ‘팍체(pacché)’와 같은 고대 마야문명 시대부터 전승되어온 에네켄 섬유 추출 방식이 사용되었다.(Howard F. Cline(1987): 187) 그러나 점점 에네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 대량생산을 위한 기계의 필요성이 절실해지면서, 1830년 경부터 사람들이 섬유 추출기 혹은 섬유 뽑는 기계(desfibradora o raspadora)를 발명하기 시작했다. 여러 가지의 에네켄 기계가 고안되었지만, 주로 19세기에 발명된 기계들 중 대표적인 모델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1853년 4월 11일 유카탄 주 정부가 마야의 오랜 전통적 에네켄 원사 추출 방식을 바꿀 만한 기술 혁신을 위해 “첫 발명가” 경연대회를 주최했다. 두 명의 경쟁자가 내놓은 두 대의 섬유 추출 기계가 최초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첫 번째는 농장주이던 마누엘 세실리오 비야모르(Manuel Cecilio Villamor)의 섬유추출기로서 미국의 뉴 올리언스에서 업그레이드 된 형태로 제작되어 1854년 12월 특허권을 취득했다. 비야모르의 발명품은 십자형 플라이휠을 이용해 칼날이 붙어있는 롤러를 회전시켰다. 그러나 디자인이 고급스러운 반면에 생산성이 떨어지고 실용적인 면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에네켄 산업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도 1〉 마누엘 세실리오 비야모르의 섬유 추출기
(출처: AGN, Patentes y Marcas, C. 41, Exp. 16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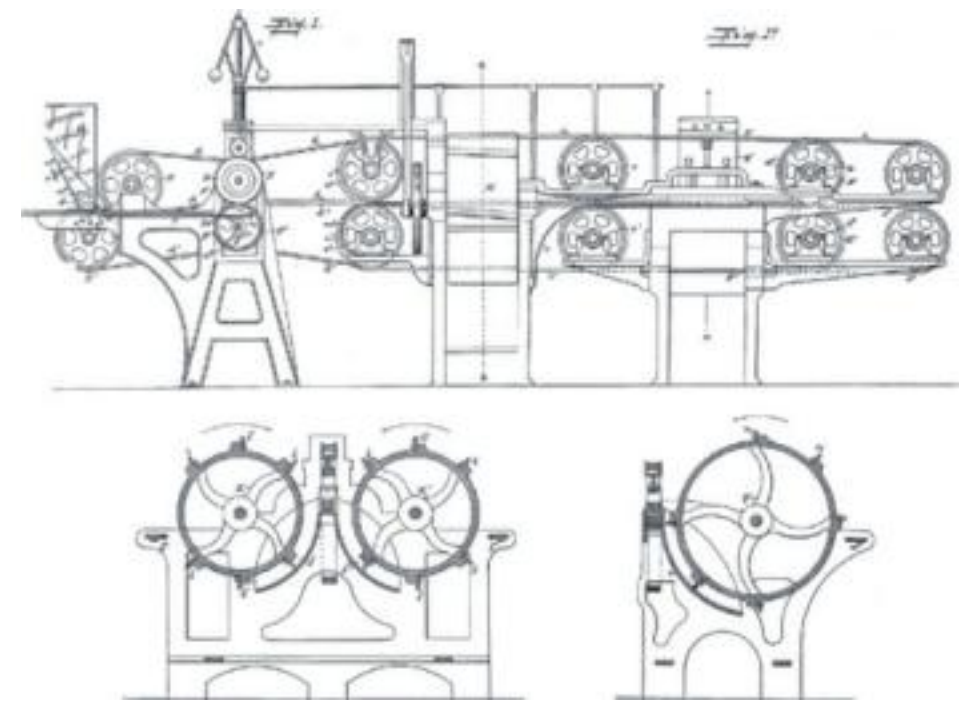
두 번째는 목수인 호세 에스테반 솔리스(José Esteban Solís)의 발명품이었다. 얼마 후 솔리스는 에네켄의 단단한 앞을 벗겨 낼 수 있는 더 저렴하고 효율적인 기계를 고안하였다. 1857년 이래로 솔리스 ‘바퀴’는 에네켄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이 최초의 두 모델은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유사하지만, 디자인과 부품의 위치면에서 많은 차이점을 보인다. 호세 에스테반 솔리스에 의해 고안된 “솔리스 기계”는 나무 바퀴 모습을 갖춘 최종 모델을 완성하면서 1857년 1월 특허권을 획득한다. 바깥 쪽은 7개의 청동으로 된 칼날이 달린 바퀴로 구성되어있다. 최초의 모델들은 형태가 단순하며 다소 작업하기 위험하고 생산성 면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었다.(Tzintzun. Rev. estud. históricos)



〈도 2〉 RUEDA RASPADORA DE SOLIS.
호세 에스테반 솔리스의 섬유 추출기 (출처: Segura, José C., El maguey, lám.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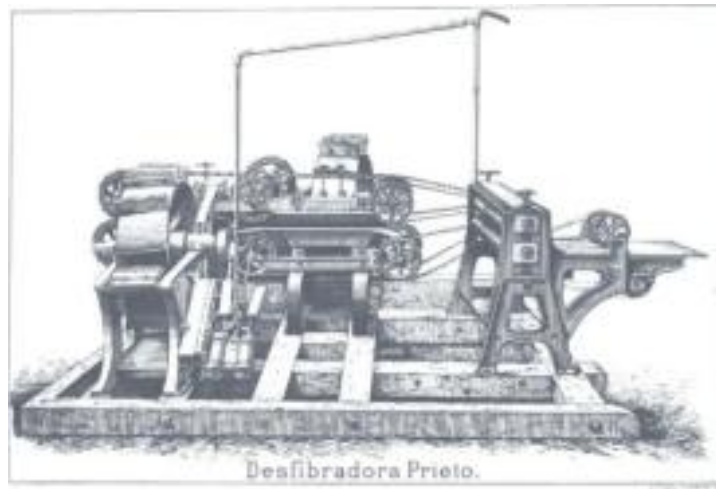
솔리스 이후 가장 큰 에네켄 기계의 발전은 1861년에 잇징캅(Itzincab) 농장의 소유주인 에우세비오 에스칼란테(Eusebio Escalante)가 최초로 증기엔진을 수입하여 자신의 농장에 솔리스가 발명했던 ‘바퀴’ 형태의 섬유 추출기 모델 2대에 증기 엔진을 설치하면서 부터이다. 이 기계를 통해 상업화를 위한 대규모 생산이 시작됐다. 또한 생산의 가속화와 노동 인력 절약을 목적으로, 채취된 에네켄 잎 다발과 가공이 끝난 에네켄 삼실을 운반하는 드코빌사의 협궤철도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했다.(Howard F. Cline 1987: 193) 에네켄 기계의 산업화가 시작되며 단 시간 내에 유카탄반도의 북동부는 거대한 에네켄 밭으로 변했다.

1872년 에네켄 기계의 완성도와 생산 단위에 대한 기계화의 확대가 급히 진행되었다. 농장주들은 에네켄 섬유추출기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람에게 높은 상금의 지급을 제안했다. 당시 스페인 이민자인 마누엘 프리에토(Manuel Prieto)가 목표량을 달성하며 승리자를 의미하는 “벤세도라(Vencedora)”라는 이름의 새로운 모델을 제작했다.(Vandari M. Mendoza 2017: Tzintzun. Rev. estud. históricos)



〈도 3〉 마누엘 프리에토의 섬유 추출기 Vencedora의 첫 번째 모델
(출처: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pat. 446791, 26-02-18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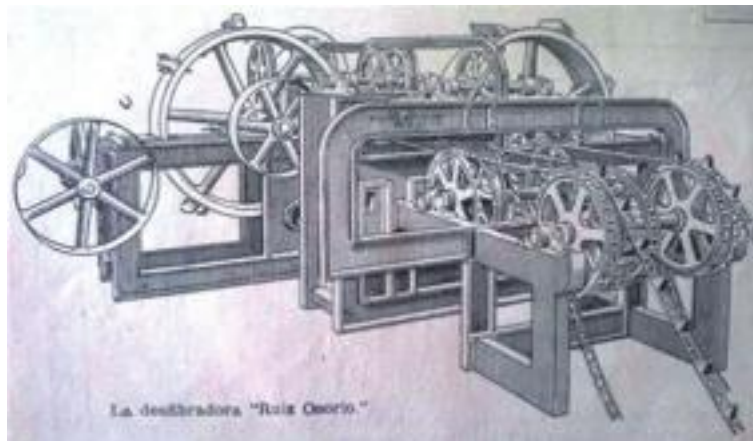
이후로 프리에토 형제는 자동으로 작동하는 “유레카(Eureka)” 기계로 당시의 주요 필수 조건인 효율성과 안전성을 충족시키며 1882년 11월 특허권을 얻음으로써 에네켄 산업의 혁명을 이루었다.(Vandari M. Mendoza 2017: Tzintzun. Rev. estud. históricos)



〈도 4〉 섬유 추출기 Eureka (출처: Segura, José C., El maguey, Lám. 16)

1888년 이후 맥코믹 사가 밀 수확기를 널리 보급하며 에네켄에 대한 전례 없는 세계적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을 때, 유카탄에서는 이미 이를 충족시킬만한 기술이 개발되어 사용 중에 있었다. 이런 에네켄 기계의 진화를 위한 토대는 기본적으로 1830년과 1860년 사이에 세워졌다고 볼 수 있다. (Howard F. Cline 1987: 194)

마지막으로, 1905년 한인이민자들이 유카탄 에네켄 농장에 도착했던 20세기 초에 발명된 대표적인 에네켄 기계를 살펴 보자면, 1902년 멕시코 에네켄 산업은 토마스 루이스 오소리오(Tomás Ruiz Osorio)에 의해 신기술 개발을 이루었다. 특히 “루이스 오소리오 섬유 추출기” 모델은 유카탄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작동이 쉬우며 이전의 기계들을 사용할 때 발생하던 기계 부서 노동자들의 팔, 다리 절단 부상이나 칼날로 인한 사망 등 노동 인력의 무수한 안전 사고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José Luis Fernández Ruiz 2018: Ensenada.net.).



〈도 5〉 섬유 추출기 Ruiz Osorio (출처: José Luis Fernández Ruiz 2018: Ensenada.net.)

IV. 나가는 글

지금까지 이 글의 전반부에서 살펴 본 것처럼, 1033명의 대규모 한인이민자들이 1905년 구한 말 하와이의 성공담에 매료되어 금의환향의 꿈을 안고 그 이웃나라 멕시코로 4년간의 노동이민을 떠났지만, 이 멕시코 초기 한인이민은 모집부터 멕시코에 도착해 농장에 분산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이 멕시코 이민브로커 존 마이어스와 일본의 이민회사인 대륙식민합자 회사의 결탁으로 꾸며진 대규모 사기극이었다.

이들은 황성신문에 허위, 과장 선전이 가득한 대대적인 이민 모집광고를 전국의 주요 항구도시에서 내며 최초의 멕시코 한인 이민모집의 막을 올렸다. 가족단위 이민자들이 대다수를 이루었고 퇴역 군인, 양반, 소작인, 기독교인, 노동자와 부랑아, 무당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사람들이 모집되었다. 멕시코와 국교가 수립되지 않은 대한제국 정부의 여권발급은 불가능해 보였으나, 마이어스의 갖은 권모술수에 의해 결국 여권이 발급되어 4월 초 일포드호를 타고 제물포항을 떠났다. 한인들은 일본의 요코하마에서 영국의 엘보트호로 배를 갈아타고 1905년 5월 중순 경 멕시코의 살리나 크루스 항에 도착한 후, 배와 기차를 타고 최종 목적지인 유카탄(Yucatán)의 주도인 메리다에 도착했다. 곧 한인노동자들은 22개 이상의 에네켄 농장으로 분산되며 4년간의 힘겨운 노동생활이 시작됐다.

한인노동자들의 에네켄 농장생활은 살인적인 무더위 속에서 단단하고 두꺼운 가시가 잔뜩 달린 에네켄 잎들을 잘라서 다발로 묶는 매우 힘겨운 노동이었다. 매일 이른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한인노동자들은 주어진 작업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온 가족이 동원되어 에네켄 잎을 잘라 다발로 묶는 일에 매달렸다. 제대로 일을 못하면 채찍을 맞았고 도망치면 곧 붙잡혀와 온갖 수모를 겪었다. 노예와 다름없는 삶에 절망해 자살하는 사람들과 힘든 농장생활로 인한 사망자도 다수 발생했지만, 결국 한인들은 강인하고 성실한 태도로 부채노예의 멍에를 떨치지 않고 4년간의 혹독한 농장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자유인이 된 한인노동자들은 1909년 메리다 국민회를 설립한 후, 한글 학교를 세워 후손들에게 모국어와 민족 정체성을 심어주려 했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독립을 갈망하면서 독립자금을 꾸준히 모아 보냈고 승무학교를 세워 독립운동 준비를 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한인회를 주도하던 1세대 한인들이 거의 사망하고 후손들은 현지인들과의 혼혈화되고 동화되면서 한국인으로서의 민족 정체성이 상실되어가는 모습이다.

한편, 글의 후반부에서 유카탄 에네켄 산업과 에네켄 기계의 변천사를 살펴 보니, 19세

기 말에 에네켄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의 급증에 발 맞추어 1861년 에우세비오 에스칼란테가 1857년 제작된 솔리스 ‘바퀴’ 모델에 증기엔진을 사용하면서부터 상업화를 위한 본격적인 대규모 생산이 시작되었고 더 효율적인 기계의 눈부신 발전으로 ‘그린 골드’의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세계시장의 상황 변화와 멕시코 혁명의 영향으로 1920년대 말부터 에네켄 산업은 점점 쇠락해갔다. 또한 에네켄 섬유의 생산과정을 살펴 보니, 처음에 에네켄 잎을 잘라 다발로 묶는 에네켄 채취 작업 후, 에네켄 섬유 가공 또는 분리 공장으로 이동해 기계실에서 엔진을 작동시켜 에네켄 기계로 에네켄 잎을 압축시켜 섬유를 추출하고 섬유를 세척한다. 보통 최종적으로 젖어있는 섬유를 야외 건조장에서 말리며 작업이 마무리 되는데, 현대식 기계의 경우는 밧줄의 포장까지도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19세기 말~20세기 초 에네켄 산업의 본격적인 발전이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함에 따라, 1905년 일본과 멕시코 국제 이민 사기단의 희생양이 되어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긴 조국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멕시코 초기 한인이민자들은 4년간 에네켄 농장에서 농장주들의 지나친 ‘갑질’과 채무노예의 덫이라는 멕시코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적인 악조건에 맞서 사투를 벌인다. 결국 한인의 강인한 정신과 성실함으로 힘겨운 농장생활을 이겨내고 자유인이 된 후에도 여전히 조국의 해방을 위해 먼 이국에서 마지막까지 투쟁하며 살았던 이 불굴의 투사들의 이야기가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에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염원해 본다.

[참고문헌]

- 김원용(1959), <재미한인 오십년사>, Reedley C.A.: Korean Affairs Institute.
- 서성철(2004), <멕시코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II. 멕시코 초기한인이민 역사”, 국립민속박물관, 45-72.
- 이자경(1998), <한국인 멕시코 이민사>, 서울: 지식산업사.
____, <한국인 멕시코 이민사> “5장 초기 농장생활” (미한사, 2019.6.14. <https://mehansa.com/p242/24465>)
- 임천택(1945), <쿠바한인이민사>, 아바나: 태평양주보사.
- 전용갑, 신정환, 황순양, 박영미(2018), <라틴아메리카 역사 산책>,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콘텐츠원.
정경원, 김기현, 박영미, 이종득, 전해찬, 안금영, 신정환(2005), <멕시코 쿠바 한인이민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José Sanchez Pack(1973), <Memorias de la vida y obras de los coreanos en México desde Yucatán>, México.
- Howard F. Cline(1987), “El episodio del henequén en Yucatán”, Secuencia(1987), 8, mayo-agosto, 186-203.
- Kuntz Ficker, Sandra(2010), <Las exportaciones mexicanas durante la primera globalización1870-1929>, El Coleiog de México.
- Paek, Pong Hyon(1968), “The Koreans in Mexico: 1905-1911”, B.A. Austin: Univ. of Texas.
- Patterson, Wayne(1983), “Korean Immigration to the Yucatan at the turn of the Century: The Diplomatic Consequences”, 24th Annual Convention of the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México.
- Romero Castilla, Alfredo(1997), “Huellas del paso de los inmigrantes coreanos en tierras de Yucatán y la dispersión por el territorio mexicano”, María Elena Ota Misima (coordi.) Destino México: un estudio de las migraciones asiáticas a México, siglos XIX y XX, México: El Colegio de México, 123-166.
- Turner, John Kenneth(2002), México Bárbaro, México: Ed. Porrúa.
황성신문, “농부모집광고”, 1904년 12월 17일, 20일, 22일, 24일, 28일자와 1905년 1월 9일, 13일자: 1905년 4월 1일자: 1905년 4월 4일자: 1905년 7월 29일자: 1905년 11월 15,16, 17일자
- La Revista de Mérida, “La inmigración de coreanos”(1905년 5월 13일자), “La llegada de los coreanos, son robustos y con aspecto de buena salud”(1905년 5월 15일자)
- “Máquinas de vapor y motores de gas en las haciendas henequeneras”, Haciendas Mexicanas, <http://haciendasmexicanas.iberamerika-online.de/Maquinas-de-vapor-y-motores-de-gas-en-las-hacienda.582+M52087573ab0.0.html>
- “Motores diesel en las haciendas henequeneras”, Haciendas Mexicanas, <http://haciendasmexicanas.iberamerika-online.de/Motores-diesel-en-las-haciendas-henequeneras.593+M52087573ab0.0.html>

- Fernández Ruiz, José Luis, “Máquina desfibadora de henequén Ruiz Osorio”, Ensenada.net., 2018.4.9, https://www.ensenada.net/noticias/nota_CU.php?id=52689
- Lozano, Luis(2018), “Así es como ‘el oro verde’ se convierte en cuerdas, tela...”, El Financiero, 2018.12.29, <https://www.elfinanciero.com.mx/peninsula/henequen-oro-verde-de-yucatan-se-convierte-en-cuerdas-tela>
- Mendoza, M. Vandari(2017), “En constante movimiento. Dos episodios sobre la circulación de saberes tecnológicos a través de la invención de las máquinas desfibradoras de henequén, siglo XIX”, Tzintzun. Rev. estud. Históricos no.66, jul./dic. 2017, http://www.scielo.org.mx/scielo.php?script=sci_arttext&pid=S1870-719X2017000200067#ch1
- Fernández Noa, Yurina, “Leyendas Mayas: Zamná y el Henequén”, Yucatán Today, <https://yucatanoday.com/leyendas-mayas-zamna-y-el-henequen/>
- “이민 정보” (2018년 12월 22일) 주멕시코 대한민국대사관 - http://overseas.mofa.go.kr/mx-ko/brd/m_5957/view.do?seq=118599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이민사 유물 수집과 전시

기 량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운영과

I. 들어가며

II. 한국이민사박물관 전시 현황

III. 근현대 자료 수집과 전시 사례

IV. 에네켄기계 전시

V. 나오며



이민사 유물 수집과 전시

기량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운영과

I 들어가며

인천광역시 시민들과 해외동포들이 함께 뜻을 모아 건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이민사박물관인 한국이민사박물관(Museum of Korea Emigration History, 韓國移民史博物館)이 개관한 지 10여 년이 지났다. 인천광역시가 인천에 박물관을 건립한 동기는 인천이 우리나라 첫 공식 이민의 출발지라는 점이다. 인천시는 “한국이민사박물관이 국내·외 동포사회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하여 과거 지향이 아닌 700만 동포들의 삶과 애환이 살아 숨쉬는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장소로써 또한 국내·외 동포 모두가 한국인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박물관이 되도록 노력한다”¹⁾고 밝히고 있다. 이런 바람을 담아 한국이민사박물관은 100여 년의 한인 이민 역사를 체계화하고, 선조들의 해외에서의 개척자적인 삶을 기리고, 그 발자취를 후손들에게 전하면서 인천시민이 도시 역사의 자부심을 느끼는 역할도 한다. 지역을 대표하는 사립대학교인 인하대학교의 ‘인하’ 명칭은 인천과 첫 이민지인 하와이에서 한 자씩 따온 사례에서 보듯이 인천은 한국이민사박물관을 통해 지역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개관 후 1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인천광역시의 위상은 매우 높아졌고, 문화 환경과 여건도 변화했다. ‘세계를 향한 동북아의 국제도시’를 꿈꾸는 인천광역시는 이제 과거 선조들의 첫 공식 이민의 출발지에서 그치지 않고, 오늘날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외인 이민자의 관문이 되고 있다. 이처럼 변화된 인천광역시의 비전에 발맞춰 한국이민사박물관의 미션과 비전도 개관 시점인 2008년과 달라져야 하며, 새로운 미션과 비전을 정립하고, 미래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변화 시점을 맞아서 한국이민사박물관의 소장품인 에네켄기계에 대한 연구와 전시는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박물관 소장의 에네켄기계가 비록 1905년 멕시코 이민 당시의 기계는 아니지만, 멕시코 초기 이민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 에네켄기계 전시를 통해 이민 당시의 선조의 고난과 역경을 들여다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 글은 한국이민사박물관이 소장하는 에네켄기계를 활용한 전시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이민사박물관 전시 현황을 소개하고, 해외 근현대 자료 전시 사례를 통해 에네켄기계 전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에네켄기계 전시 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전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1) 한국이민사박물관 홈페이지 ‘박물관 소개’>‘인사말’, <https://www.incheon.go.kr/museum/MU040401>, 2020.09.06.

II. 한국이민사박물관 전시 현황

1. 상설전

1) 전시 구성

한국이민사박물관 상설전시실은 최초의 공식 이민인 하와이 이민을 시작으로 시간 흐름에 따른 연대기적인 구성을 기본으로, 국가와 지역별 이민, 이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1, 2전시실은 하와이 이민을 주로 다루며, 3전시실은 중국과 러시아, 중남미로의 이주를 다루고 있다.

구 분	내 용	전 시 품	비 고
1전시실 〈미지의 세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민의 출발지였던 개항 당시의 인천 하와이로 이민자들을 싣고 떠난 첫 선박인 갤릭호를 통해 이민자들의 길고 험난했던 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물, 영상과 모형, 패널 (사진, 그래픽, 설명) • 주요전시품: 갤릭호 모형 	
2전시실 〈극복과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와이에 정착한 한인의 애환과 개척자로서 미국 전역에 뿌리 내린 발자취 사탕수수농장 한인노동자들의 고된 노동생활과 하와이 한인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민자 가옥 및 교실 (재현), 유물, 패널(사진, 그래픽, 설명) • 주요전시품: 이민자 가옥 및 한인학교 디오라마 	
3전시실 〈국경을 넘어 세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세기 중엽 중국과 러시아 땅인 만주와 연해주로의 한인 이주 20세기 이후 중남미와 독일 이주 해외입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오라마, 유물, 패널 (사진, 그래픽, 설명) • 주요전시품: 에네켄채취 모습 디오라마와 도구, 한인 이주자료 	2018년 개편
4전시실 〈세계 속의 대한민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 각국으로 진출한 700만 해외동포의 근황 한인이민사 재조명 해외이민 기념사업과 축제, 문화 활동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물, 패널 (사진, 그래픽, 설명) 	2018년 개편

〈표 1〉 상설전시실 구성

전시 내용은 개관 당시인 2008년과 비교할 때에 3, 4전시실 일부가 변화되었다. 현재의 3전시실 내용은 개관 초기에도 있었으나 리모델링을 통해 일부 내용이 보강되었다. 이주나 이민과 관련된 주제의 특별전을 개최하고 전시 종료후 그 결과를 상설전시 보강에 활용하는 점은 매우 바람직하다. 4전시실은 주제 변화 없이 전시품과 내용, 진열장 개선 등을 보강하였다.



〈사진 1〉 1전시실 입구



〈사진 2〉 3전시실 에네켄 채취 모습

2) 관람 동선과 전시 연출

상설전시실은 1층과 2층에 배치되어 있다. 관람은 박물관 1층에서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2층으로 이동하여 1전시실에서 출발하며, 2전시실과 3전시실 순서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2전시실에서 3전시실로의 이동은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로 한다.

전시장 입구에는 프롤로그 공간이 있고, 이어서 1전시실이 있으며, 1전시실 관람을 마치면, 통로를 지나 2전시실로 이어진다. 2전시실 관람을 마치면, 다시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3전시실과 4전시실이 있는 1층으로 이동한다. 1, 2전시실과 3, 4전시실이 동일층에 없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다. 1, 2전시실을 관람한 다음에 새로운 전시 주제로 이어진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전 전시관의 흐름과 맥락이 이어지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처럼 1, 2층의 수직적·입체적인 전시관 동선 구성은 국내외의 여러 박물관에서 채용하고 있다. 다만 이런 경우에 각 층을 이동하는 중간의 수직 공간을 잘 활용하면 전시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민사박물관도 통로나 유휴 공간에 입체적인 자료를 배치한다면, 관람객이 공간을 이동하는 과정에 전시 흐름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특별전

한국이민사박물관에서는 2008년 개관 이후, 2009년 특별전 “우리아이 꼬까웃”과 미술전 “디아스포라의 귀향”을 비롯해 해외 이민과 이주를 주제로 한 특별전을 매년 1회 개최해 오고 있다.²⁾ 여러 특별전 가운데 2010년 특별전 “또 다른 삶의 울림-낮선 땅, 낮선 생활”과 2019년 특별전 “에네켄에 담은 염원, 꼬레아노의 꿈”은 이번 전시 주제인 에네켄기계와 연관성이 있어 주목된다. “또 다른 삶의 울림-낮선 땅, 낮선 생활” 전시에서는 2부에서 ‘에네켄 노동자의 삶’을 다루고 있다.

또한, 2016년 특별전 “또 다른 이민, 해외 입양” 처럼 제목에서 보듯이 이민의 한 형태인 해외 입양을 다루고 있는데, 주목할 점은 특별전 주제가 상설전시의 내용 개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이 특별전 종료 후에 전시 내용을 상설전에 반영하는 체계는 매우 바람직하다.

2) 2009 특별전 “우리아이 꼬까웃”, 미술전 “디아스포라의 귀향”, 2010 특별전 “또 다른 삶의 울림-낮선 땅, 낮선 생활”, 2011 특별전 “동방을 밝힌 등불, 북간도 명동촌(明東村)”, 2012 특별전 “젊음, 독일행 비행기에 오르다”, 2013 특별전 “자이니체(在日) 학교들-재일 한인 민족 교육”, 2014 특별전 “황무지에서 지켜낸 민족혼”, 2015 특별전 “사할린 한인의 망향가”, 2016 특별전 “또 다른 이민, 해외 입양”, 2017 특별전 “새롭게 보는 하와이 韓人 독립운동 자료전”, 2018 특별전 “기억할게 우토로”, 2019 특별전 “에네켄에 담은 염원, 꼬레아노의 꿈”.

Ⅲ. 근현대 자료 수집과 전시 사례

1. 이민사 자료 전시 : 해외이주자료관

(海外移住資料館, Japanese Overseas Migration Museum, 일본 요코하마)1) 전시 구성

1) 자료관 개요

해외이주자료관은 미주를 중심으로 한 일본인의 해외 이주 역사 및 이주자 및 일본계 현재를 테마로 한 자료관으로, 일본 국제협력단(JICA)에서 건립하였다. 이 박물관은 일본의 해외 이주의 역사, 그리고 이주자가 이주 대상 국가와 일본에 대해 수행한 역할과 공헌 및 일본계 이주자의 현재 모습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2002년에 이주 선박 출항지의 하나였던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 요코하마센터 설립과 함께 개관했다.³⁾ 요코하마에 이민박물관이 세워진 것은 인천에 이민사박물관이 건립된 것과 같은 이유이다. 19세기 후반 하와이를 포함해 남북 아메리카로 이주하는 많은 일본인의 주요 출항 항구가 요코하마였다. 닛케이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보여주는 이민박물관인 셈이다. 일본인에게는 해외이주의 역사를 전하고, 일본에서 생활하는 일본계 외국인들에게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일본인 해외이주 역사는 1866년 해외 도항을 금지하는 쇄국령 이후 약 150년.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을 중심으로 미국과 캐나다로 이주가 이루어졌고, 19세기 말 남미로 진출했다. 1924년 미국이 일본인의 입국을 금지하면서 많은 일본인이 남미로 옮겨가게 되었고, 제2차 대전 전후로 약 100만 명이 이주했다.⁴⁾

2) 전시 구성 및 연출

상설전시는 ‘해외 이주의 역사’, ‘우리 신세계에 참여해야’, ‘디지털 이주공간’, ‘일본계 라이프 히스토리’, ‘일본 속의 일본계, 세계 속의 일본계’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품은 이민자와 연관된 역사 자료, 이민 1세대와 후손들의 이야기를 사진과 영상으로 볼 수 있다. 전시품 가운데 상당수가 기증자료인데, 20세기 초 자료도 많아서 비교적 가치가 높다.

전시관은 주제별로 꾸며져 주로 중남미와 하와이를 포함해 북미 대륙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여러 개의 이민가방과 함께 그 속에 담겼던 휴대품도 소개하는 코너가 특히 흥미롭다. 이어서 노동자의 고된 현장과 이민자의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공간이 있다. 전시 후반부에 ‘일본 속의 일본계, 세계 속의 일본계’가 있는데, 전시가 과거에 그치지 않고, 현재와 미래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이처럼 해외이주자료관은 자료의 충실성, 그리고 19세기와 이후의 이민자 외에도 그들의 후손인 ‘일본계’의 현재 모습을 조명하고

3) 해외이주자료관 홈페이지, <https://www.jica.go.jp/jommm/> 2020.09.06.

4) 김정학, 『영남일보』, [김정학의 박물관에서 무릎을 치다] 제 나라 떠나 낯선땅 내딛던 사람들의 고된 여정.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190222.010380828420001>, 2019.2.22.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러한 점은 한국이민사박물관의 에네켄기계 전시나 향후 상설전시실 개편 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사진 3〉 이민자 가방과 내부 물건



〈사진 4〉 세계 속의 일본계를 소개하는 전시

2. 건축물 이건(移建) 전시

- 메이지무라 박물관(明治村 博物館, 일본 아이치)

1) 박물관 개요

박물관 메이지무라(博物館 明治村, 이하 메이지무라)는 일본 아이치현 이누야마시 남동쪽에 자리해 있는 100만㎡ 규모의 야외박물관이다(사진 참고⁵⁾). 이 박물관은 일본이 세계로 문호를 개방하여 서양의 문물과 제도를 받아들여 근대화의 기반을 쌓아 올렸던 메이지 시대의 각종 건축물 중에서 예술적·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다양한 건물을 모아 마을을 형성한, ‘메이지 시대의 마을’이라는 의미이다. 메이지무라에는 사라져가는 건물과 구조물 60여 채를 순차적으로 이건(移建) 복원했는데, 개관 당시 홋카이도나 도쿄를 비롯한 지역 등에서 옮긴 건물과 시설물 등 15건에 불과했지만, 점차 일본을 비롯해 시애틀·하와이·브라질 등에서 건물을 옮겨오기도 했다.



〈사진 5〉 박물관 메이지무라 전경

2) 배치 및 구성

메이지무라는 크고 작은 구릉과 이루카연못[入鹿池]이 있는 부지에 다양한 기능과 형태의 건축물이 자연 지형과 경관에 맞게 집합을 이루며 배치되어 있다(그림 참조⁶⁾). 각 건물 가운데 국가 지정 문화재인 중요문화재와 비지정 건축물 모두 유적으로서의 가치가 드러나도록 지형에 따라 잘 배치되어 있으며, 건물 주변에는 나무가 식재되고, 길도 조성되어 있다.

5) 박물관 메이지무라 홈페이지, <https://www.meijimura.com/about/>

6) 박물관 메이지무라 홈페이지, <https://www.meijimura.com/guide/map/>

메이지무라는 정문에서부터 북쪽 출입구까지 여러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에는 상가와 관청 건물, 학교 건물, 종교 건물을 비롯해 다양한 종류의 건물이 자리하고 있는데, 교회당 등, 일부 건물을 제외하고 건물 여러 채가 집락(集落)을 이룸으로써 자연스럽게 마을과 거리가 재현되었다.

박물관 정문은 '제8고등학교 정문'을 이축·배치함으로써 메이지무라를 방문한 관람객이 마치 메이지 시대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주면서 정문 역할을 하고 있다. 박물관 맨 마지막에는 근대건축의 거장이자 세계적인 건축가인 프랭크 라이드 로이트(Frank Lloyd Wright, 1867~1959) 설계의 제국호텔 건물이 있다. 거리에는 선로가 깔리고 당시의 증기기관차가 운행되며, 교토시전차, SL 시전, 버스, 마차도 운행되는 등 교통수단의 역할은 물론 메이지 시대의 풍물을 전달하는 메이지무라의 명물이 되었다. 메이지무

라는 정문에서부터 북쪽 출입구까지 8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에는 상가와 관청 건물, 학교건물, 종교건물을 비롯해 다양한 유형의 건물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교회당 등 일부 건물을 제외하고 건물 여러 채를 모아 집락(集落)을 이룸으로써 단일 건물이 아니라 다양한 거리 재현이 되고 있다.



〈도 1〉 메이지무라 구성 및 배치도



[사진 6] 메이지무라 내 가로와 건물 전경



[사진 7] 박물관 정문(제8고등학교 정문 활용)

3) 전시 연출과 시사점

메이지무라는 건축물이 원래 놓였던 장소에서 벗어나 다른 위치에, 다른 건물과 함께 배치되면서, 새롭게 형성된 '마을'이다. 하지만, 자연 지형과 건축물의 성격과 상관성을 토대로 배치되어 새로 조성된 마을이라는 느낌을 거의 받지 못한다. 거리를 돌아다니거나 건물 실내에 들어가면 메이지 시대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다양한 체험과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어 관람객들이 마치 메이지 시대로 돌아간 경험을 하게 된다.

각 건물은 건물 내부에 가구는 물론 전등, 커튼 같은 실내 장식을 그대로 재현하고, 건물과 관련된 자료도 전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오오이(大井) 정육점은 메이지 시대에 고기를 팔던 정육점 모습을 연출해 놓았다. 우지야마다 우체국은 우편물 보내기, 우표와 엽서 판매, 저축 업무를 하는 우체국을 실내에 연출했는데, 이곳에서 편지를 우체통에 넣으면 메이지무라 소인이 찍혀 주소지로 배달된다. 그리고 구레하자 극장(呉服座)에는 가부키 공연 무대와 좌석이 배치되어 있고, 가부키 공연 모습을 연출해 놓고 있다. 또한, 하이칼라 사진관에서는 관람객이 메이지 시대의 귀부인복 같은 의상을 입고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다. 이처럼 관람객은 메이지무라에서 메이지 시대 당시의 풍속을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다.

메이지무라는 메이지 시대의 건축물을 수집, 이건(移建)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메이지 시대의 마을을 만들면서, 당대의 역사자료를 수집·보존하는 박물관이자 메이지 시대의 모습과 정신을 발견·체험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은 메이지무라가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특히 개관 이후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건축물을 비롯한 전시품이 늘어나고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지속해서 성장하는 박물관을 위해 노력하는 점은 매우 의미가 깊다. 한국이민사박물관도 새로운 볼거리를 위해 지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특히 메이지무라가 다양한 형식의 건축물을 이전, 복원했듯이 이민과 관련한 건축물 수집에 관심을 기울이면 좋겠다.

• 피바디에섹스박물관(Peabody Essex Museum) 잉유당과 잉유당 갤러리(미국 매사추세츠 세일럼)

1) 박물관 개요

미국 Boston 인근 Salem(市)에 있는 피바디에섹스박물관은 1799년 피바디에섹스 재단의 소장품을 기초로 세워진 박물관이다. 오랜 역사를 가진 이 박물관은 1993년부터 대규모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2001년에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예술을 통한 문화의 이해'를 지향하는 피바디에섹스박물관은 내부 공간과 유물 디스플레이, 내외부 색채, 진열장, 동선 등에 있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관람객 만족도도 매우 높다.

피바디에섹스박물관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대규모 리노베이션을 하는 과정에 여러 개의 작은 건물(박물관)을 연결하여 하나의 건물로 통합하였다. 가로 사이에 있던 여러 건물을



〈사진 8〉 박물관 입구



〈사진 9〉 박물관 아트리움

연결하기 위해 가로 상부 전체를 유리로 덮어 내부 공간으로 만들고, 이렇게 확장된 공간은 아트리움(Atrium)이 되었다. 가로 같은 외부 공간이 내부 공간으로 변하면서, 관람객은 박물관 내에서 쾌적한 관람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형태나 기능상 분절되었던 건물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외형상으로나 기능적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박물관으로 변모한 것이다.

2) 리노베이션과 잉유당(Yin Yu Tang, 蔭餘堂)

대규모 리노베이션 프로젝트에는 중국 안후이성(安徽省)에서 옮겨온 청대(清代) 2층 가옥인 잉유당(Yin Yu Tang, 蔭餘堂) 이건(移建)도 포함되어 있다. 중국에서 이곳으로 옮겨 지은 이 가옥에는 기둥과 보와 같은 주요 부재는 물론 벽돌과 창문, 기왓장, 벽지 같은 건축 및 실내 장식 부재부터, 침대와 의자 같은 가구, 성주신과 같은 가신(家神)의 신체(神體)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것이 재현되어 있다.



〈사진 10〉 박물관 아트리움에서 보이는 잉유당

잉유당 이건 프로젝트는 미국에서 동양 어떤 나라의 건물을 단지 옮겨 지은 데서 그치지 않고, 박물관의 주요 전시품이자 공간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우선, 잉유당은 피바디에섹스박물관 내부 곳곳에서 보인다. 잉유당은 모형(사진 11, 12)에서 보듯이 박물관 한쪽에 있지만, 전시실에서 나와 다음 전시실로 이동할 때 유리창을 통해서 멀리 잉유당이 보인다. 박물관에 들어온 관람객이라면 잉유당을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아트리움(Atrium)과 복도에서도 잉유당을 자주 볼 수 있어서 관람객은 전시를 관람하는 동안에 유리벽 건너에 있는 이색적인 건물인 잉유당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을 갖게 되고, 건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다. (사진 10) 박물관 곳곳에서 건물이 보이지만, 한 번에 전체를 보여주지 않는 방식, 그래서 이 건물은 관람객의 호기심을 더 자극한다. 더구나 잉유당은 동양의 목구조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서양의 조적조 방식이나 목구조 방식과는 또 다른 구조와 결구 방식이라 관람객들의 관심이 높을



〈사진 11,12〉 박물관 모형 (좌) 박물관 정면에서 본 잉유당 (우) 잉유당 쪽에서 본 박물관

수밖에 없다. 더구나 1층 아트리움과 2층 전시관 복도에서 잉유당의 출입문 파사드가 보여 건물에 대한 궁금증을 더 키운다.

3) 잉유당 전시 연출과 시사점

잉유당은 □자 평면의 2층 건물로, 가운데 중정을 두고 있다. 이 박물관에서 시도한 잉유당의 공간 연출이 매우 놀랍다. 잉유당의 중정은 상부가 원래 뚫려 있는데, 이 박물관에서는 뚫린 상부를 덮어서 마치 실외에 있는 것처럼 만들었다. 그래서 관람객은 하늘이 보이는 밝은 햇빛 아래에 있어서 마치 실외로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가옥 상부 전체가 유리로 덮여 있는 실내이다. 따라서 관람객들은 잉유당이 실내라는 느낌을 거의 갖지 못한다. 이렇게 실내화함으로써 잉유당 건물을 보존하는 것은 물론 관람객이 눈, 비, 추위 등 외부 자연환경 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관람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미술관의 덴두르 사원, 아스터 코트(The Astor Court)와 같다. 특히 덴두르 사원은 외부 센트럴파크와의 경계에 있는데, 유리창을 통해 센트럴파크의 자연과 조화되면서, 마치 실외 같은 공간 분위기를 보여준다. 피바디에섹스 박물관 잉유당도 실내이지만 마치 실외 같은 공간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 13〉 잉유당 2층에서 본 모습

잉유당이 특히 주목되는 점은 옆에 배치된 잉유당 갤러리이다. 잉유당 전시실은 집(宅, House) 가족(祖, Family), 마을(鄉, Village)로 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잉유당에 살던 가문의 가계도, 건축 구조 모형과 집 짓는 연장, 풍수서와 윤도판, 부적, 복식 등을 볼 수 있다. 관람객들은 전시실에서 유물과 자료, 영상을 통해 그곳에 살던 가족을 만나고, 중국식 의자에 앉아서 중국 마작을 체험할 수 있다.

관람객들은 잉유당에서 건물 이건 당시의 흔적을 고스란히 감상하고, 본관에 있는 잉유당 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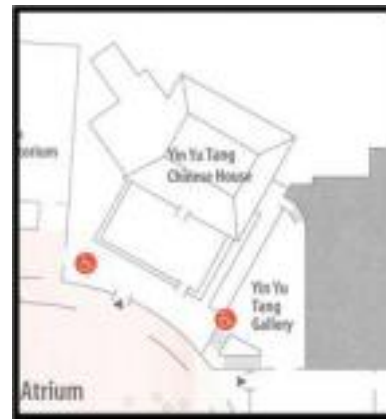
〈사진 14, 15, 16〉 잉유당 갤러리 전경

러리에서 집을 둘러싼 오랜 역사와 주제별 내용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잉유당과 잉유당 갤러리 전시는 '집'이라는 외형의 건축물 감상에 그치지 않고, 집에 살던 사람들의 역사와 살림살이를 통해 '사람'과 '생활문화'를 잘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잉유당(건물)과 잉유당 갤러리는 상호 보완 관계로서, 실제의 집 유물(가옥)과 관련된 일상 유물, 두 종류를 통해 중국인의 삶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잉유당 건물 전시에 그치지 않고, 실외·실내 공간 구분을 없애는 시도, 건물과 유물을 연계한 전시는 근대 유물을 활용한 전시 구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피바디에섹스박물관 잉유당 이진(移建)은 박물관 공간과 개념을 확장한 시도이다. 무엇보다도 외부에 있는 잉유당⁷⁾과 실내에 있는 박물관 본관의 잉유당 갤러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점은 매우 놀랍다. 전시공간이 확장되고 상호 보완 역할을 하면서, 건물과 주생활, 생활 도구를 통합적·유기적으로 연계 시켜 중국 전통 주거문화를 소개하는 매우 훌륭한 사례이다. 잉유당과 잉유당 갤러리 사례는 에네켄기계의 배치와 전시 연출에 있어서 참고할 만하다.



〈도 2〉 피바디에섹스박물관 배치(사각형이 잉유당과 잉유당 갤러리)



〈도 3〉 잉유당과 잉유당 갤러리 세부

7) 위치로는 외부에 있지만, 건물 전체를 유리로 덮어서 관람객은 외부라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한다.

3. 근대 건축유산 활용 전시: 와인자료관 (일본 야마나시현)

일본 야마나시현 코푸시(甲府市)는 포도 산지로, 메이지 시대에 유럽의 포도주 제조 기술을 전수한 포도주 생산지이다. 이곳에는 건축유산을 활용한 미야코엔(宮光園) 와인자료관 등 여러 개의 포도주 전시관이 있다.

미야코엔 와인자료관은 포도와 연관된 근대 시기 건축인 옛 다카노 주택(高野家住宅)을 개조·건립한 전시관으로, 이 전시관에는 초기 포도주병을 비롯하여 가옥 도면, 법랑 간판 등 오래된 자료들로 채워져 있다. 이 자료관 인근에는 야마나시현 지정 유형문화재이자 경제산업성(經濟産業省) 근대화 산업유산(近代化産業遺産) 지정 건물인 옛 미야자키 제2양조소(宮崎第二醸造所)를 활용·건립한 와인자료관이 있다. Château Merian에서 운영하는 이 자료관에는 포도주를 생산하던 당시의 양조장 시설과 기계, 집기들이 전시되어 있다. 자료도 대부분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내용이나 종류도 포도주 생산 과정은 물론 생활상에 이르는, 포도주와 관련한 자료로 구성되어 있어서 풍부하다. 근대 건축유산과 자료가 전시관으로 잘 활용되는 이 사례를 한국이민사박물관에서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사진 8〉 박물관 입구



〈사진 9〉 박물관 아트리움

IV. 에네켄기계 전시

1. '동북아 국제도시, 인천'과 한국이민사박물관의 전시

1) 전시 방향

바다와 하늘을 통해 세계와 연결하는 도시로서, '세계를 향한 동북아의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인천광역시의 성장과 전환기를 맞아 한국이민사박물관도 새롭게 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 환경과 박물관 여건 변화를 토대로 미래전락을 수립하고, 이와 함께 미션과 비전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아울러 조사연구, 수집, 전시, 교육 등 박물관 주요 활동의 단기 및 중장기 전략과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조직 구성과 자원 확보에 힘써야 한다.

박물관의 변화 가운데 관람객이 가장 체감하는 것은 상설전시실이다. 그렇다고 많은 예산

을 투입해 연출 방식을 바꾸고 진열장을 교체하는 등 상설전시실의 외형 변화에 그치면 안 된다. 박물관 상설전시는 미션과 비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그것은 신축 박물관이나 리모델링 박물관 모두 마찬가지이다. 상설전시 진행 과정에서 조사연구와 수집, 전시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면서 끊임없이 상호 협업과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조사연구가 선행되지 않는 전시는 질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전시 구성과 내용이 좋아도 전시품을 적기에 수집하지 못하면, 전시장은 복제품이나 모형, 패널로만 채워질 뿐이다. 따라서 전시 계획을 수립하면서 선행 조사연구 결과, 수집품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질적으로 우수한 전시를 완성할 수 있다. 이처럼 전시와 조사연구, 수집이라는 일련의 활동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이민사박물관 상설전시실은 2008년 개관 당시와 비교할 때, 2018년에 일부 주제와 연출을 개편한 것을 제외하면 큰 틀에서 변하지 않았다. 각 박물관은 짧으면 3년, 늦어도 10년 안팎을 주기로 상설전시를 개편하고 있다. 개편 목적은 대개 노후화한 시설과 공간 개선, 그리고 연출 기법 변화를 통해 관람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기존 전시와 비교하여 새로운 조사연구 결과를 반영하고, 관람객의 요구를 반영하면서 새로운 전시를 선보여, 관람객 재방문율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 이민사박물관도 인천광역시의 시정 방향과 목표에 맞춰 전면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편에는 변화된 박물관 비전과 미션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한민족생활사’, ‘한국인의 일상’, ‘한국인의 일생’으로 구성된 상설전시관 가운데 ‘한민족생활사’를 2018년에 ‘한국인의 하루’로 전면 개편하였다. 이때 전시 연출과 기법은 물론 주제도 전면 개편하였다. 주제인 ‘한민족생활사’가 우리 역사 5000년을 다룬 내용이었다면, ‘한국인이 하루’는 하루 동안 펼쳐지는 우리 선조들의 일상을 다루고 있는데, 이는 일상을 중시하는 시대적인 요구에 대한 반영이기도 하고, 그동안 내부 연구직과 민속학자, 관람객의 제기한 내용을 반영한 결과이다.

상설전시 개편과 함께 특별전에 대한 계획 수립도 필요하다. 상설전시는 박물관의 얼굴이지만, 얼굴을 자주 바꾸기는 어렵다. 규모와 범위가 방대하고, 그에 따른 예산 확보도 쉽지 않기 때문에 상설전시는 개관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개편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차선책으로 특별전시를 통해 상설전시에 담지 못하는 주제, 혹은 변화하는 시대의 이슈를 다룰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상설전과 특별전의 역할 분담, 그리고 특별전의 활용과 연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민사박물관은 기존에도 특별전 결과를 토대로 상설전 개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상설전시의 충실도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다만, 상설전시를 위한 특별전 이외에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시도도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외국 박물관 혹은 기관과 교류전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상설전시 개편 방향

1) 주제 및 구성

이민사박물관 주제와 구성은 개편 시 변화할 필요가 있다. 새 전시관은 한민족 이민사에서 벗어나 타민족의 이주까지 다룰 필요가 있다. 인천은 이제 우리 민족의 출발만이 아니라 동북아 국제도시로서, 내외국 이민자의 관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단지 과거의 사실, 즉 과거에 우리 선조들의 이민사를 기술하고, 관련 자료를 전시하는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단일민족에서 다민족사회로 가는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이주와 이민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우리가 성찰할 점은 무엇인지를 포함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한국이민사박물관이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하며, 역할은 무엇인지 담겨야 한다.

전시 구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대기 방식에서 탈피하여, 주제별 전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리 이민사를 소개하는 데 연대기 방식이 낫지만, 이 방식은 ‘이민’을 통해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할 여러 이슈를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우리 사회에서 마주하는 ‘이주와 다민족사회’, ‘한민족 이민과 동남아 이민’, ‘입양과 새로운 가족’ 등에 대해 고민하고 성찰하며, 과거를 통해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연대기 전시와 함께 주제 전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전시품

전시품은 문서, 문헌 외에 이민사와 관련한 다양한 실물 자료의 수집이 필요하다. 일본 해외이주자료관의 경우처럼 초기 이민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는 자료의 수집을 통해 전시품 다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료 외에 이민사 관련 건물 수집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일본 메이지무라 사례에서 보듯이 메이지 시대 다양한 건물을 이건(移建)하여, 메이지 시대의 마을을 조성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메이지무라의 건물은 그 자체가 박물관이며, 박물관의 대표 전시품이 되므로 이민 관련 건물 수집과 이전을 추진하면 좋겠다.

자료 수집 방법도 구입이나 수증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특히 건물을 수집한다면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연출 및 전시 기법

전시 연출 방식의 변화와 발전은 놀라울 정도이다. 기존 박물관 전시가 유물, 설명패널이나 그래픽패널, 모형으로 이루어지던 연출 방식과 비교하면 최근에는 많이 달라졌다. 공간 디자인의 수준이 높아지고, 영상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시 연출 또한 매우 발전했다. 특히 2020년에 실감형 미디어 전시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해 여러 박물관이 이 전시를 많이 시도하고 있다. 실감형 미디어 전시는 과거를 재현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며, 전시 내용을 이해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이와 함께 2020년에 크게 유행한 코로나19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2020년을 지나면서

박물관에서는 대면접촉에 대한 대비와 함께 온라인전시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온라인전시 계획을 오프라인전시와 함께 수립해야 할 것이다.

3. '에네켄기계와 이민자의 삶' 전시 계획(안)

1) 전시 방향

한국이민사박물관의 건립 목적은 “우리 선조들의 해외에서의 개척자적인 삶을 기리고 그 발자취를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함”으로, 상설전시와 특별전을 통해 이 목적을 달성해 오고 있다. 하지만, 자료 부족의 한계로 해외 이주 당시의 개척자적 삶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에네켄기계 전시를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에네켄기계만 덩그러니 전시해서는 곤란하다. 기계만 놓여 있다면, 이 기계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알기 어렵다.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에네켄기계를 통해 단지 유물 전시에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해 당시 이민자의 삶, 즉 노동과 생활의 실상을 전해줘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유물(Object)’ 중심에서 탈피하여, 사람과 스토리를 강조하는 현대 박물관의 전시 경향과도 연관이 깊다.

멕시코 초기 이민자의 삶은 현재도 연결된다. 당시 멕시코인들이 매우 힘든 일인 에네켄 채취를 이주노동자인 우리 선조에게 강요했다는 점에서 이런 내용은 현재 이주노동자와도 연결된다. 우리 국민 가운데 일부는 이주노동자들이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는 이유를 들면서 이주노동자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데(그들이 우리 일자리를 빼앗은 것이 사실인지도 모르지만), 우리 선조들의 고단한 이민사로 볼 때 이런 태도는 옳바르지 않다. 우리 선조들이 타국에서 그들과 차별 없이 살고 싶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주노동자를 차별 없이 대하면서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전시를 통해 관람객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어야 할까? 왜 이민사박물관이 필요한가를 과거에 그치지 않고, 현재와 미래의 시각으로 다뤄야 한다. 즉, 과거를 통해, 현재와 미래를 성찰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에네켄기계는 우리 선조 이민자의 고단한 삶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단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이주자, 결혼이주자 등과도 연관시켜야 한다. 특히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우리나라에서 결혼과 노동 이주자에 대한 인식이 문제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전시에 담는 것이 필요하다.

에네켄기계 전시는 사람(이민자), 이야기(스토리), 공간(작업장과 숙소)이 중심이 되면 좋겠다. 유물만 전시하면 관람객이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기계 전시만이 아니라 기계 사용 방법과 이야기를 함께 전시해야 한다. 아울러 기계가 있던 작업장을 이전, 복원하면 좋을 것이다. 한국이민사박물관 건립 초기에 필자는 이민사박물관 자료 수집의 어려움을 공감하면서, 이민사박물관의 대표 전시물로 이민과 관련된, 건물(원형)을 우리나라로 이전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물론 짧은 기간에 유서 깊은 건물을 발굴해서 우리나라로 옮겨 짓는 게 매우 어렵다. 하지만 일본 메이지무라(明治村)나 피바디에섹스박물관 잉유당 이건(移建) 사례에서 보듯

이 건물 이전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에네켄기계 전시는 유물과 사람, 이야기를 함께 소개하는 프로젝트로서 새로운 변환점에 선 한국이민사박물관의 첫 과제라고 할 만큼 중요하다. 건물 이전과 함께 기계를 활용한 전시 구상을 함께해야 할 것이다.



작업과정을 보여주는 사례로 일본 야마나시의 인텐(印傳)공방이 있다. 인텐은 사슴가죽을 이용하여 찍어내서 공예품을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만든 인텐제품은 국외로도 많이 알려져 있다. 인텐공방은 대규모 판매장과 함께 있는데, 이곳에서는 공방 옆 유리창을 통해 인텐 제작 기법을 볼 수 있다. 유형의 유물인 인텐 기계와 작업 과정을 모습인 무형유산이 결합한 방식을 전시에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에네켄기계 전시에 활용한다면 에네켄기계 작동 과정과 섬유 추출 모습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전시 계획

(1) 구성 및 내용

현재까지 남아 있는 멕시코 초기 이민자의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에네켄기계는 당시 역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이다. 에네켄기계를 활용하여 전시를 구성한다면 당시 이민자의 삶과 역사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전시품으로는 에네켄기계 외에 기계 도면이 포함될 수 있으며, 에네켄기계와 관련된 구술사 자료, 작동법 등이 있다. 무엇보다도 초기 멕시코 이민자인 우리 선조들은 에네켄 채취에 모두 동원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내용이 중심을 이뤄야 할 것이다.

전시 구성은 에네켄기계를 중심으로 하여, 크게 에네켄 농장과 멕시코 이민자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에네켄 농장’은 한인들이 에네켄을 채취하는 과정, 기계로 섬유를 채취하는 과정, 그리고 숙소에서의 일상생활이 포함된다. ‘멕시코 이민’은 초기 멕시코 이민의 전 과정과 한일 강제병합 후 독립운동, 계약 종료 후 쿠바로의 이동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주제	구분	내 용	연 출
에네켄 농장	실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인들의 에네켄 채취 에네켄기계(작업장 재현) 숙소 생활(실내 재현, 생활도구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네켄 재배 혹은 모형 연출 작업장, 숙소 복원 (혹은 프로젝션매핑 재현) 구술사 청음 실감영상
멕시코 이민	실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멕시코 이민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민모집과 송출 멕시코 입국과 에네켄농장 취업 독립운동 지원 현재의 멕시코 이민자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시관 진열장 및 재현

〈표 2〉 전시 구성

두 내용은 서로 연계되어야 한다. ‘에네켄 농장’ 전시는 실외에, ‘멕시코 이민’ 전시는 실내에 하면서 두 개의 전시관을 인접 배치하는 것을 제안한다. 피바디에섹스박물관 잉유당과 잉유당 갤러리 사례처럼 건물 바로 옆에 별도의 전시 공간을 배치하여 두 공간을 함께 관람하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2) 장소

에네켄기계를 설치할 수 있는 위치는 박물관 전면 공원 부지, 주차장, 본관 내외부 유휴공간(썬큰공간 혹은 전시동 외벽 공간) 등이 있다. 각 위치에 대한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위 치	장 점	단 점
실 외	공원부지	• 작업장 건물 이전(혹은 복원)시 상징적인 전시품이 될 수 있음.	• 별도 진열장(혹은 건물) 설치 시 주변과의 조화 우려. • 본관 상설전시 맥락 전달 어려움. • 주차장, 공원 축소에 따른 관람객 불편.
	주차장		
실 내 ⁸⁾	본관 유휴공간	• 상설전시와 연계성 좋음. • 아이디어 구상에 따라 입체적인 구성 및 연출 가능.	• 건물 이전 어려움 및 향후 확장성 부족. • 증축 공사 어려움.

〈표 3〉 장소 검토

위 표로 볼 때 실외보다는 실내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예산 확보와 함께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전시 연출

전시 연출은 에네켄 기계의 실물 전시와 영상을 활용한 연출이 있을 것이다. 21세기 초까지만 해도 국내 대부분의 박물관에서 디오라마 기법을 사용하였다. 디오라마 기법은 유물로서 표현하기 어렵고, 공간 제약으로 인해 표현할 수 없는 내용을 모형과 배경화를 통해 보여주는 연출기법이다. 따라서 에네켄기계를 이용해 섬유를 뽑아내는 제작 과정을 보여줘야 한다면 기존에는 디오라마 방식으로 하겠지만, 최근 영상기술이 날로 발전하면서 영상을 통해 디오라마보다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디오라마가 제작 과정의 어느 한 부분(장면)만을 보여준다면, 영상은 더 부분을 표현할 수 있고, 전체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세부 디테일도 묘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실내 일부는 프로젝션매핑 방식의 영상을 활용하여 재현할 수 있다. 영상을 통해 생활상을 보여주는 사례는 국내외 박물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사진 20〉 쇼팽박물관 상설전시 영상

8) 본관 주변의 실외 공간인 경우에 실내화 공사 추진.

폴란드 쇼팽박물관의 상설전시나 국립고궁박물관 “신(新) 왕실도자” 특별전에서는 당시의 시대상을 영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국립고궁박물관 전시에서는 서양식 연회가 열리는 장면을 배우들이 재현한 영상을 프로젝션 매핑 영상기법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영상은 이처럼 당시 시대상을 재현하고 전달하기에 좋은 연출 방법이다.



〈사진 21〉 ‘신 왕실도자’전의 서양식 연회 재현 영상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면, 최근 각 박물관에서 활발하게 시도하고 있는 실감형 미디어 전시를 도입할 수도 있다. 실감형 미디어는 실제와 유사한 3차원 가상환경을 구현하고 몰입도와 현실도가 높은 가상 경험 및 감성을 전달하는 미디어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해 국립민속박물관 등, 여러 박물관에서는 실감형 미디어 전시를 통해 전시장 안에서 관람자가 몰입해서 현실감 있는 영상물을 보도록 실감형 전시관을 조성하고 있다. 전시관 조성이 된다면 관람객은 에네켄기계와 실감형 미디어를 몰입해서 보면서, 당시로 돌아간듯한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VR(가상현실)기법이나 AR(증강현실)기법으로 에네켄농장과 숙소를 체험하고, 에네켄을 채취하면서 가시에 찢리는 체험 등,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실감형 미디어와 AR, VR기법을 활용한다면, 에네켄기계 전시에서 벗어나 기계를 다뤘던 한인이주자, 그리고 그들의 노고를 설명하고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영상을 통해 당시의 시대상과 건물을 복원하고, 기계 작동법, 제작 과정 등, 유물로 표현하거나 설명하지 못하는 내용을 보완하면서 관람객들에게 잘 소개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사진 22〉 ‘신 왕실도자’전의 요리사 요리 재현 영상

V. 나오며

한국이민사박물관은 2008년 개관 이후 10여 년이 지났다. 박물관의 상설전시 전면 개편 주기가 3년에서 10년 내외임을 참고하면, 한국이민사박물관도 전면 개편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이번 전시를 계기로 상설박물관을 개편하면 좋겠다.

한국이민사박물관은 우리나라 첫 해외 공식이민인 하와이 이민을 소개하면서 이민 모집부터 송출 과정, 갈릭호를 타고 하와이로 간 여정, 농장생활 등을 구체적인 사료 분석을 통해 전시로 입체화하였다. 두 번째 공식이민인 멕시코 이민은 에네켄기계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한다. 에네켄기계 전시는 대

표전시품이 부재한 한국이민사박물관의 전시를 입체적이면서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만 에네켄기계가 선조들과 직접 연관된 유물이 아니라는 점은 아쉽다.

이번 에네켄기계 전시를 계기로 연대기로 구성된 현 상설전시를 탈피할 필요가 있다. 연대기 전시는 관람객이 주제의 역사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을 주지만, 주제별 구성과 달리 확장성에 한계를 가지게 된다. 주제별 접근을 통해 새롭게 전시 구성을 하면 좋을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국외에서의 결혼이주와 노동이주로 구성원이나 문화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다. 이민사박물관 전시도 그들의 관점에서 다룰 수 없을까? 태어난 곳을 등지고, 자의든 타의든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은 어느 시대, 어느 곳이나 있었다. 자의로 이민을 택했든, 아니면 타의로 택한 경우에도 자기가 태어난 고향과 고국은 가고 싶은 곳이다. 그것은 우리 선조든 외국인 이주자든 마찬가지이다. 초기 한인 이민을 통해 우리 선조들의 비극을 경험했듯이, 우리를 성찰하는 측면에서 이민과 이주를 다룰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시를 관람한 사람이 우리 선조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이주한 또 다른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 고난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역할을 박물관이 할 것이다. 그것이 한국이민사박물관의 역할이 아닐까 한다. 이 사업이 박물관의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한국이민사박물관 소장 에네켄 기계 현황과 보존 방안

허윤희 한국이민사박물관

I. 들어가는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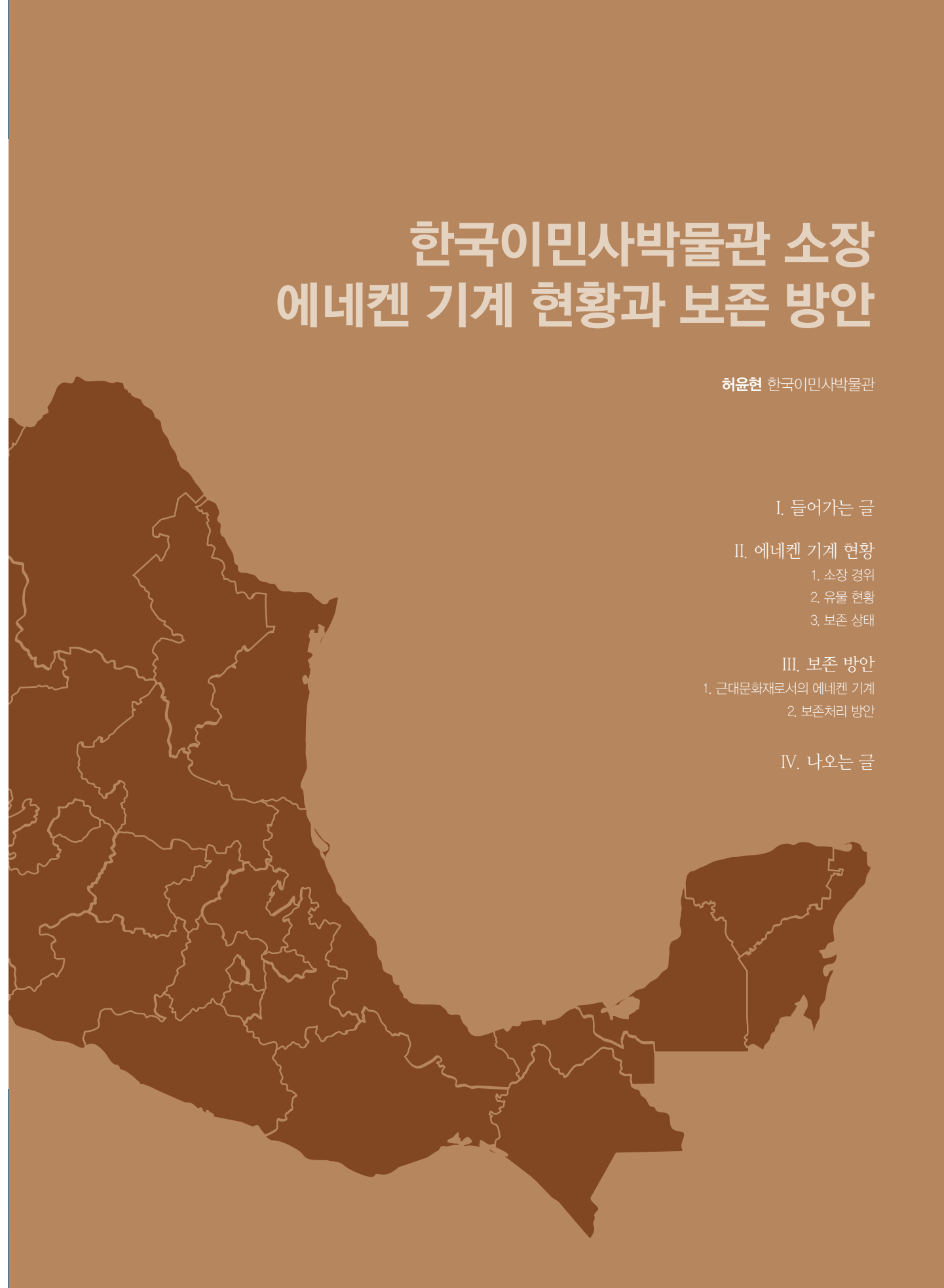
II. 에네켄 기계 현황

1. 소장 경위
2. 유물 현황
3. 보존 상태

III. 보존 방안

1. 근대문화재로서의 에네켄 기계
2. 보존처리 방안

IV. 나오는 글



한국이민사박물관 소장 에네켄 기계 현황과 보존 방안

허윤현 한국이민사박물관

I 들어가는 글

한국이민사박물관은 국내 최초의 이민사 박물관으로서 2003년 미주 이민 100주년을 맞아 건립되었고, 건립을 위한 준비 기간에는 한인 이민과 관련한 유물을 수집 및 구입하여 전시유물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인 이민이 이루어진 일부 지역의 유물을 일괄 구입하기도 하였는데, 한국이민사박물관 소장 에네켄 기계가 그러한 유물이다.

에네켄 기계는 멕시코 에네켄 농장(터치물 아시엔다 Ticmul Haciend)에서 사용되던 기계로서 멕시코 한인 이민사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유물임과 동시에 19세기 에네켄 산업의 성장에 부흥하여 개발되고 사용된 근대화재이다.

한국이민사박물관에서는 장기간 컨테이너에 격납하고 있는 에네켄 기계의 현황과 자료조사, 유물실사 및 3D 촬영을 실시하여 유물의 원형과 보존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자 하였다. 다만 멕시코 에네켄 기계와 관련한 자료 조사와 유물 현황 파악 위주로 진행된 사업으로 재질 분석과 도면 작업은 진행하지 못했다.

본 글에서는 한국이민사박물관 소장 에네켄 기계의 현황과 보존 상태를 고찰하고 근대화재로서 보존처리 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박물관을 대표하는 유물로서 전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대비하고자 한다.

II. 에네켄 기계 현황

1. 소장 경위

한국이민사박물관에서는 박물관 건립 준비를 위해 2005년 멕시코 한인 이민과 관련한 유물을 구입하였는데, 이중 에네켄 기계가 포함되었다. 한국이민사박물관 소장 에네켄 기계는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터치물(Ticimul) 아시엔다(Hacienda)에서 사용되었던 기계이다. 구입 당시에는 건물에서 이미 철거된 상태였으며, 철거 시기는 알 수 없다. 에네켄 기계의 구입은 1식(式)으로 구입되었는데 에네켄 농장에서 사용되던 물품까지 포함하여 인수되었다.

에네켄 기계는 한국으로 운송되면서 본체가 해체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부품이 누락되어 유실되었다. 또한 농장에서 사용하던 물품이 기계 부품과 혼용되면서 유물의 원형을 추측

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어느 부속이 어떻게 조립되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현재의 컨테이너에 격납되고 유물의 원형은 더욱 추측하기 어렵게 되었다.



〈사진 1〉 인수 전 상태(본체)



〈사진 2〉 인수 전 상태(엔진)

2 유물 현황

에네켄 기계는 에네켄 잎을 벗기는 기계이다. 에네켄은 우리말로는 어저귀 또는 용설란인데 식물과로는 수선화과에 속하고, 현대 식물학자들이 붙인 학명은 “agave fourcroydes”으로서 미국 무역상들은 “sisal hemp”라 하고 유카탄에서는 에네켄이라고 부른다.¹⁾ 에네켄 잎을 벗겨서 채취하는 섬유는 여러 용도로 사용되는데, 멕시코의 유카탄 지역이 에네켄 재배에는 최적의 장소였다.

에네켄 기계는 19세기 후반에 개발되어 에네켄 산업 부흥의 동력이 되었다. 처음에는 실용성과 안정성이 떨어졌으나, 증기엔진을 도입하고 개량되면서 점차 20세기 초에 사용된 에네켄 기계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엔진동력도 점차 증기엔진에서 디젤엔진, 가스엔진, 전기엔진 등으로 변천하게 된다.

한국이민사박물관 소장 에네켄 기계는 20세기 초에 사용되었던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 두 개의 원통형 바퀴(고형륜 鼓形輪)와 디젤엔진, 에네켄 리프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2층으로 된 건물에서 사용되었던 형태인데, 기계와 엔진은 2층에 설치하고 1층에는 농장과 연결된 레일을 설치하였다. 현재는 본체 2점과 엔진으로 크게 나뉘어진 상태이다. 본체와 엔진의 크기는 표.1과 같다. 기계 본체 뿐 아니라 급엽판, 에네켄 리프트, 엔진과 연결되는 도르레 시스템 등을 고려하면 대형 유물이다.

구 분	가 로	높 이	폭	비 고
본체 1	2,558mm	1,549mm	1,530mm	최장 길이
본체 2	2,586mm	1,659mm	1,421mm	
엔진	3,203mm	1,722mm	1,202mm	

〈표 1〉 에네켄 기계 본체 및 엔진 크기

1) 이자경(2006) 〈멕시코 한인 이민 100년사〉 461p



〈사진 3〉 에네켄 기계 본체 1번(왼쪽)과 2번(가운데), 엔진(오른쪽)

에네켄 기계 본체는 두 개의 원통형 바퀴로 구성되는데 각각의 바퀴는 동으로 된 8개의 날이 있어 에네켄 잎을 벗겨내는 기능을 했으며, 톱니바퀴(기어 Gear) 부품과 체인 등으로 연결하였다. 에네켄 리프트는 에네켄 잎을 1층에서 2층으로, 급엽판은 에네켄 잎을 원통형 바퀴로 옮기는 장치이다. 에네켄 기계의 동력인 엔진은 부다(BUDA)사의 엔진으로 6기통의 디젤 엔진이다. 동력원인 엔진과 본체의 연결은 도르레 시스템(Pully system)으로 연결하였다.



〈사진 4〉 원통형 바퀴의 동제 날과 세부 사진

이와 관련하여 컨테이너 내부에서 도르레 시스템과 리프트의 부품들이 확인되었고, 에네켄 농장에 설치했었던 철도레일의 수레와 손수레, 에네켄 섬유를 건조하기 위해 설치했던 건조장의 목재들, 건물의 문과 농장 인부들이 사용했던 의자의 일부 편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진 5〉 본체 연결 부품(왼쪽)과 레일 수레(가운데)와 도르레 시스템(오른쪽)

에네켄 기계는 복합재질 유물로 크게 철로 된 부분과 동으로 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본 골조는 철로 되어 있으나 에네켄 잎을 벗기는 날이나 섬유가 닿는 부분, 체인 등 일부는 동으로 되어 있다. 이는 에네켄 잎을 으깨면서 나오는 과육과 즙으로 인해 기계에 부식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식화합물로 인한 섬유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이종금속 간의 갈바닉 부식²⁾에 따른 동재질의 내식성 강화와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두 이종금속(dissimilar metal)이 용액 속에 담겨있게 되면 전위차가 존재하게 되고 따라서 이들 사이에 전자의 이동이 일어난다. 그리하여 귀전위를 가진 금속의 부식속도는 감소되고 활성전위를 가진 금속의 부식속도는 촉진된다. 즉 전자는 음극이 되고 후자는 양극이 된다. 이러한 형태의 부식을 갈바닉 부식 또는 이종금속접촉부식이라 한다.

한국이민사박물관 에네켄 기계는 본체를 연결하는 부품 일부와 3개의 체인은 유실되었으나 조립이 가능한 완형의 유물이다. 가동 여부는 확인 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리고 도르레와 급업판, 에네켄 리프트 등의 부품들은 확인은 되지만 건물 내부에 설치했었던 설비로서 조립 가능한 수량인지 확인은 어려운 상태이다.

3. 보존 상태

에네켄 기계는 인수 당시 크기 문제와 원형을 추측할 수 없는 수습 상태로 인해 임시적으로 컨테이너에 격납되었다. 격납은 본체 2점과 엔진을 우선적으로 격납하고 나머지 부품과 에네켄 농장의 물품이 혼재되어 적재되었다. 격납 기간 중에는 환풍기를 제작하여 내부의 공기가 순환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박물관 종합해충관리시스템 운영에 포함하여 매년 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모니터링 하였다.

하지만 야외 주차장에 설치된 컨테이너는 외부 환경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상태였다. 우선 항온항습 시스템이 없는 상태로 장기간 외부 온습도에 노출되면서 금속의 부식과 목재의 부후가 장기간 진행되었다. 또한 해충으로 인한 목재의 충해는 심각한 상태이다.



〈사진 6〉 컨테이너와 내부 격납 모습

우선 에네켄기계 본체의 보존상태를 살펴보면, 금속으로 제작된 본체는 기름과 먼지 등의 이물질로 인한 오염과 부식 박락이 진행된 상태이다. 엔진과 동일한 붉은색 페인트 칠이 부분적으로 관찰되는데 본체의 페인트 층은 거의 없어진 상태이다.

표면부식과 박락은 주로 철제부분에서 발생했는데 이는 먼지와 습기 등으로 인해 진행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동합금으로 제작된 톱니바퀴(기어 Gear) 부품과 체인은 철제부분에 비해 상태는 양호하지만 일부에서 청동병으로 보이는 밝은 하늘색 부식화합물이 관찰된다. 이외에 부속의 결구를 위해 사용된 일부 목재에서 부후와 철제 못의 부식이 관찰되지만 본체의 기본 골격이 되는 철제부분의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다음으로 엔진은 본체를 덮었던 양쪽 측면은 없어진 상태이고 덮개 부분도 휘어져 있는 상태이다. 펜과 환기구로 제작된 은색 코팅 부분은 심각하게 훼손되어 반 이상이 결실된 상태이다. 엔진의 일부분에서 노란색 페인트가 관찰되는데 이는 노란색 페인트 위로 붉은색 페인트

를 칠한 것으로 판단된다. 엔진은 근대문화재의 가장 큰 손상 원인 중에 하나인 부식과 페인트 박락이 진행된 상태이다. 디젤기관은 기름과 먼지가 섞여 두꺼운 이물질 층으로 고착된 상태인데 두꺼운 이물질 층에 균열이 발생된 상태이다. 또한 덮개 부분은 부식으로 인한 결실과 파손, 박락이 진행되어 훼손상태가 심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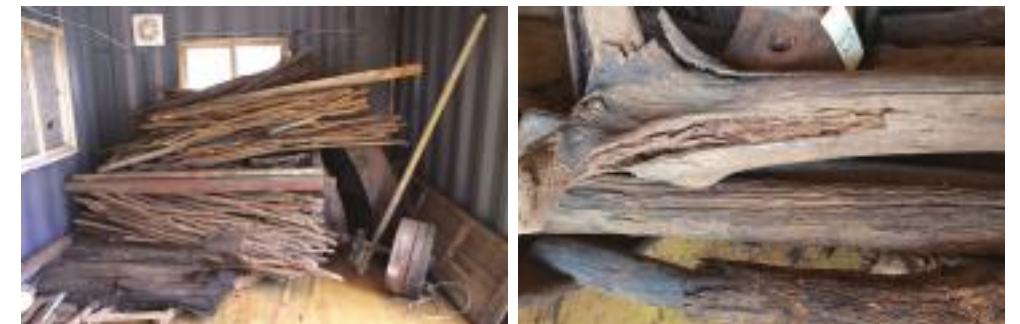


〈사진 7〉 엔진의 부식과 박락 상태

이외에 에네켄 농장에서 사용되었던 수레와 사다리, 건조장의 목재, 농장 건물의 문과 의자 파편들은 고습한 환경으로 인해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았다. 복합재질인 수레와 같은 경우는 목재의 부후와 금속부분의 부식이 진행된 상태이다. 그리고 도르레 시스템에 사용된 직물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물질과 먼지 등으로 오염된 상태이며, 가장자리의 마모가 심한 상태이다. 또한 부분적으로 경화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에네켄 농장의 목재 물품들은 장기간 적재된 상태로 습기로 인한 곰팡이가 표면에 발생된 상태이다. 컨테이너는 월미산과 공원부지에서의 해충 침입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이는 일반소독으로 방역하더라도 약재 잔존기간이 지나면 다시 침입하여 목재에 심각한 충해를 일으켰다. 특히 에네켄 건조장에 사용한 목재 부재들은 해충의 식해로 인한 충공蠹空과 오염이 주된 훼손으로 관찰된다.

결론적으로 구입 인수 이후 장기간 컨테이너에 격납 중에 있는 에네켄 기계와 농장 물품들은 외부환경 노출로 인한 손상이 지속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보존처리를 통한 상태 개선과 적절한 보존환경에서의 보존관리가 필요한 상태이다.



〈사진 8〉 목재 격납모습과 충공蠹空

Ⅲ. 보존 방안

1. 근대문화재로서의 에네켄 기계

근현대문화재는 우리나라의 근현대기(개항기 무렵~현대)에 생산된 유형의 역사 · 문화적 자산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시기적으로는 개항기 무렵(1876년)을 근대의 시작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징적으로는 단일 재질로 된 문화재가 많았던 고대와 달리 다양한 재질이 복합적으로 사용되었다.³⁾

에네켄 기계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근대 동산문화재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근대 문화재가 일제의 제국주의 침탈과 연관성이 깊다고 볼 때, 1905년 국내의 불안한 정세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멕시코로 이민을 떠난 한인들의 애환의 역사를 고려하면 우리나라 근대문화재와 다르다 할 수 없다.

또한 한국이민사박물관 소장 에네켄 기계는 근대 산업화와 관련된 기계 유물로서 멕시코 한인이민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유물이라는 점에서 향후 전시 활용성이 높아 근대 문화재 보존처리 방식으로 접근하여 진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근대문화재는 고대 유물과는 달리 제작된 시기가 오래지 않은 반면 멸실과 훼손의 속도가 빠르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장기간 컨테이너에 격납되어 훼손이 진행된 에네켄 기계의 보존처리가 시급한 이유이다.

에네켄 기계는 본체와 엔진, 도르레 시스템과 철도 시스템, 리프트 시스템 등 에네켄 농장의 건물과 함께 공간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는 유물이라는 점에서 전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복원 방향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전시 활용을 위해 에네켄 기계 뿐 아니라 부품과 농장 물품도 근대문화재로서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것이다.

2. 보존처리 방안

근대문화재로서의 에네켄 기계 보존처리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우선 유물에 남아 있는 역사적 흔적을 최대한 제거하지 않도록 하며 가역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처리 전과 후, 과정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하도록 한다. 또한 재질 분석과 도면 작업 등 사전 조사를 완료한 후 보존처리 방안을 수립하도록 한다. 분석은 비파괴 투과조사, 성분분석, 수종분석, 페인트 분석을 진행하는데 필요시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도록 한다.

3)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근현대 동산문화재 보존관리, 4~5p

본 글에서는 분석을 통한 사전조사 없이 향후 보존처리 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기 때문에 향후 보존처리 진행 시 재료와 방법이 변경 될 수 있음을 명시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근대문화재 보존처리 방법으로 에네켄 기계의 향후 처리 방안을 접근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보존처리 방안은 에네켄 기계와 농장에서 사용되었던 목재류의 물품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우선 금속유물로 분류할 수 있는 에네켄 기계의 보존처리 방안은 다음과 같다.

클리닝은 드라이아이스 블라스팅⁴⁾과 사포 또는 브러쉬를 사용하여 부식화합물 제거를 실시하도록 한다. 이는 알코올 등 용제를 사용한 습식 클리닝이 대형 금속유물 클리닝에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박락과 부식이 심각한 페인트 층은 제거하도록 한다. 이는 소지금속과 페인트 층 사이의 부식화합물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페인트 층은 보존할 경우 이후 보존처리 과정과 향후 유물 보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근대문화재 보존처리 시 분석을 통한 복원을 염두에 두고 제거를 진행한다.

부식억제 처리는 에네켄 기계가 근대유물이고 소지금속이 양호한 상태인 점을 고려하여 녹환원제⁵⁾를 사용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이는 부식억제와 코팅을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다. 단, 녹환원제 적용 전에 테스트를 통해 적합한 재료와 방법을 정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육안으로 함석으로 확인되는 부분과 엔진부 앞면의 은색 코팅이 되어 있는 부분, 동으로 제작된 부분의 부식억제는 B.T.A.을⁶⁾ 사용하여 처리한다.

강화처리는 혼합왁스⁷⁾를 가열용융법(Deep coating)으로 처리하도록 하는데 이는 아크릴 수지 코팅에 비해 내구성과 재처리가 용이하고 직사광선에 의한 코팅 피막의 수명이 길기 때문이다. 하지만 표면의 틈새나 유물의 상태에 따라 가열용융법(Deep coating) 적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아크릴 수지 코팅을 고려하도록 한다.

페인트 층은 분석을 통해 최대한 동일한 색상으로 복원한다. 또한 부속 연결에 사용된 목부재는 동일한 형태로 제작하여 조립하도록 한다. 다만 유실된 부품의 복원은 향후 전시 방향에 따라 제작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조남철 외 3인, 보존과학회지, (사)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2011, p334

5) VpCl CorrVertier Rust Prime

6) 1,2,3-Benzotriazol 3% in Alcohol

7) Carnauba 왁스, Bees 왁스를 주성분으로 하고 테레빈 오일과 Dammar 수지를 혼합한 왁스



〈사진 9〉 기계 본체의 다양한 금속 부분

다음으로 에네켄 농장에서 사용했던 목재 물품들은 충해로 인한 손상이 심하기 때문에 훈증처리를 통해 해충방제를 먼저 실시하고 보존처리를 진행하도록 한다.

클리닝은 건식세척으로 브러쉬와 에어 브로우를 사용하여 진행하며, 이물질이 고착된 부분과 부후된 부분은 스카펠 등의 소도구를 사용하여 제거한다. 그리고 에네켄 농장에서 사용되었던 목재들은 대부분 건조목으로서 해충 방제를 위한 방부약제⁸⁾ 처리를 진행하도록 한다.

강화처리는 식해로 인해 분말화가 진행된 부분에 실시하며, 사용 약제는 테스트를 통한 표면 변화를 관찰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복원은 식해로 인한 결실부분에 에폭시계 퍼티⁹⁾를 사용하여 복원하고 아크릴 물감으로 색맞춤 하도록 한다.

이외에 도르레 시스템에 사용된 직물은 훈증처리 실시 후 보존처리를 진행하도록 하며, 클리닝은 건식과 습식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강화처리 여부는 보존처리 작업을 통해 결정하도록 한다.

8) Timbor 5% 수용액을 분사하여 실시한다.

9) Araldite SV 427-2, HV 427-1 주제와 경화제 비율은 1:1 이다.

IV. 나오는 글

한국이민사박물관 소장 에네켄 기계는 멕시코 한인 이민과 관련한 상징적인 유물로서 2005년에 구입되어 현재까지 컨테이너에 격납된 상태이다. 2020년에는 자료 조사와 유물실사, 3D 스캔을 실시하여 유물의 원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 한국이민사박물관 에네켄 기계는 20세기 초에 사용되었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기계로 두 개의 원통형 바퀴(고형륜 鼓形輪)와 디젤엔진, 에네켄 리프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물 자체로는 일부 부품이 유실되었지만 조립이 가능하며, 이외에 에네켄 농장에서 사용했던 수레 등의 물품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에네켄 기계의 보존상태는 장기간 외부환경에 노출되면서 부식과 부후가 진행된 상태이다. 기계 본체는 부식과 박락이 관찰되며, 엔진은 페인트 층 박락과 부식으로 인한 훼손이 심각하다. 또한 에네켄 농장에서 사용했던 목재들은 충해와 곰팡이 등으로 인한 훼손이 관찰된다. 따라서 보존처리를 통한 상태 개선과 적절한 보존환경에서의 보존관리가 시급한 상태이다.

본 글에서는 에네켄 기계를 멕시코 한인 이민 역사와 관련한 근대화재로서 접근하여 보존처리 방안을 고찰하였다. 다만 분석을 통한 사전조사 없이 보존 방안을 제시하였기에 향후 방법과 재료가 변경 될 수 있음도 명시하는 바이다. 결론적으로 에네켄 기계의 소장 경위와 유물 현황, 그리고 보존상태의 고찰을 통해 보존처리 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유물의 복원과 전시 활용에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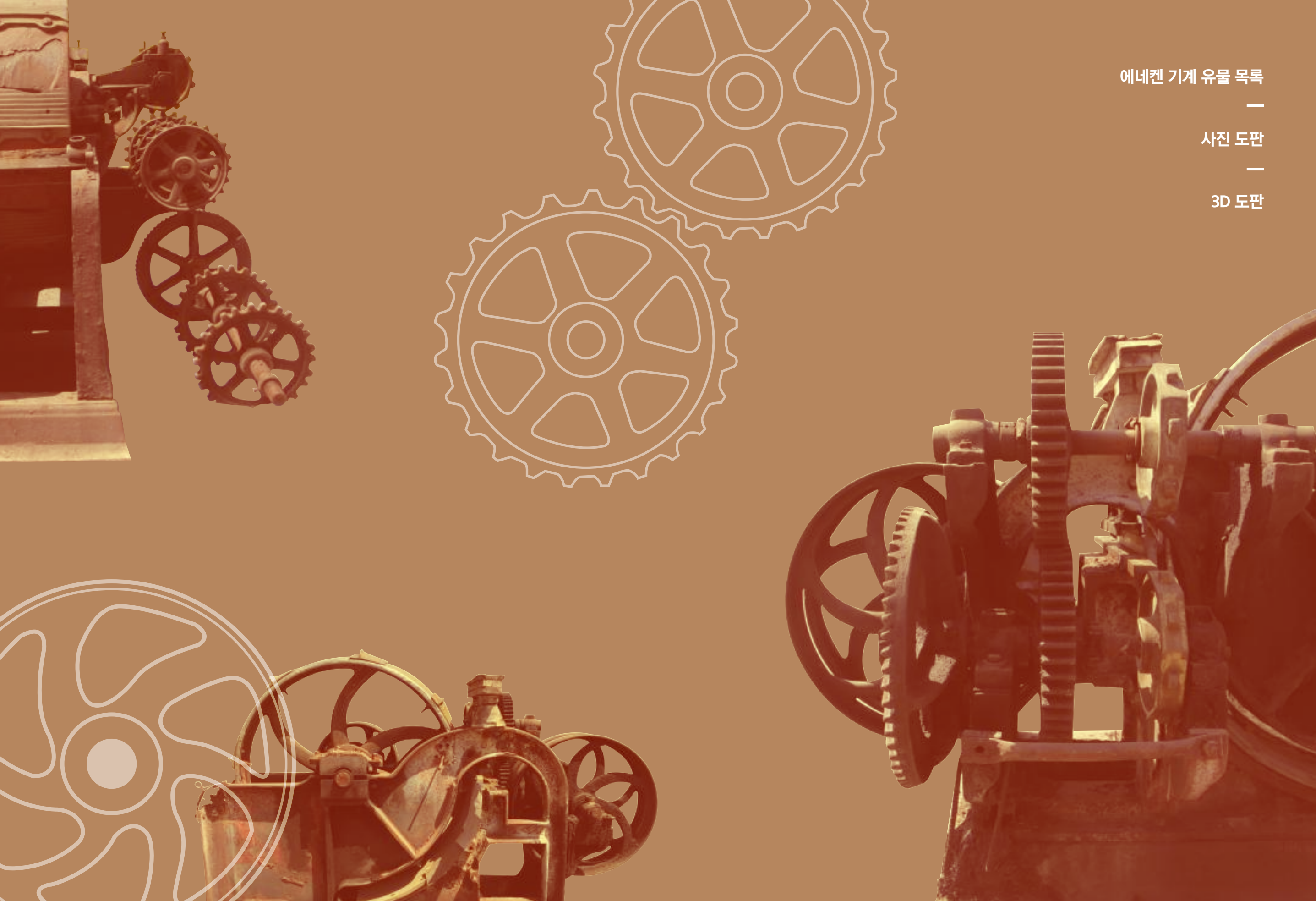
에네켄 기계 유물 목록

—

사진 도판

—

3D 도판



에네켄 기계 유물 목록						
연번	유물명	사진	수량	재질	실측치(cm)	상세설명
1	에네켄기계		1	금속 (철)	255,8×154,9×153,0	본체 1
2	에네켄기계		1	금속 (철)	258,6×165,9×142,1	본체 2
3	에네켄기계		1	금속 (철)	320,3×172,2×120,2	엔진
4	에네켄기계 연결세트		3	금속 (철, 동)	80 X 80	본체 2점을 연결하는 부분
5	에네켄기계 금속기어		1	금속 (동)	길이-45 / 지름-30	스퍼기어
6	에네켄 리프트 체인		1	금속 (철)	체인+갈고리	체인이 각각 끊어져 있음
7	에네켄기계 금속기어		1	금속 (철)	길이-313 / 지름-50	베벨기어
8	에네켄기계 금속기어		1	금속 (철)	128 x 25	스퍼기어
9	에네켄기계 금속기어		1	금속 (철)	149 x 60	스퍼기어 끝단에 베벨기어
10	에네켄기계 체인		3	금속 (동)	전체길이-400 단일부재 1(23번)- 17X5X6 / 단일부재 2-18X7X6	체인-1~38번

11	에네켄엔진 도르레		1	금속 (철)	길이-380 / 지름-90	pully system
12	에네켄엔진 도르레		1	금속 (철)	길이-447 / 大(2개) 지름-100, 小 지름-50	pully system
13	에네켄기계 금속기어		1	금속 (철)	길이-111 / 지름-46	스퍼기어
14	에네켄엔진 도르레		1	금속 (철)	길이-195 / 바퀴 大 -110, 小-87	pully system
15	에네켄기계 금속 부품		1	금속 (철)	46 x 35 x 36	도드레 연결부속
16	에네켄기계 금속부품		1	금속 (철)	58 x 20 x 16	본체 2점을 연결하는 부분
17	에네켄기계 금속부품		1	금속 (철)	58 x 20 x 16	본체 2점을 연결하는 부분
18	에네켄기계 금속부품		1	금속 (철)	가로-31, 세로-12, 높이-9	
19	벨트		1	직물	너비-11	엔진에 연결하는 벨트
20	벨트		1	직물	너비-7	엔진에 연결하는 벨트
21	에네켄기계 부속 목재		7	목재	길이-35 / 지름-30	
합계			31			

에네켄 농장 물품 목록					
연번	유물명	사진	수량	재질	실측치(cm)
1	에네켄농장 나무부재		1	목재	255.8×154.9×153.0
2	에네켄농장 수레		2	금속 목재	나무본체 : 198 X 122 X 85 수레차 : 260 X 113 (바퀴지름-大:72, 小:53)
3	에네켄농장 손수레		1	목재	149 x 63 x 76
4	에네켄농장 사다리		1	목재	258 x 84(上) x 70(下)
5	에네켄농장 욕조		1	금속	165 x 73 x 45
합계			6		

〈본체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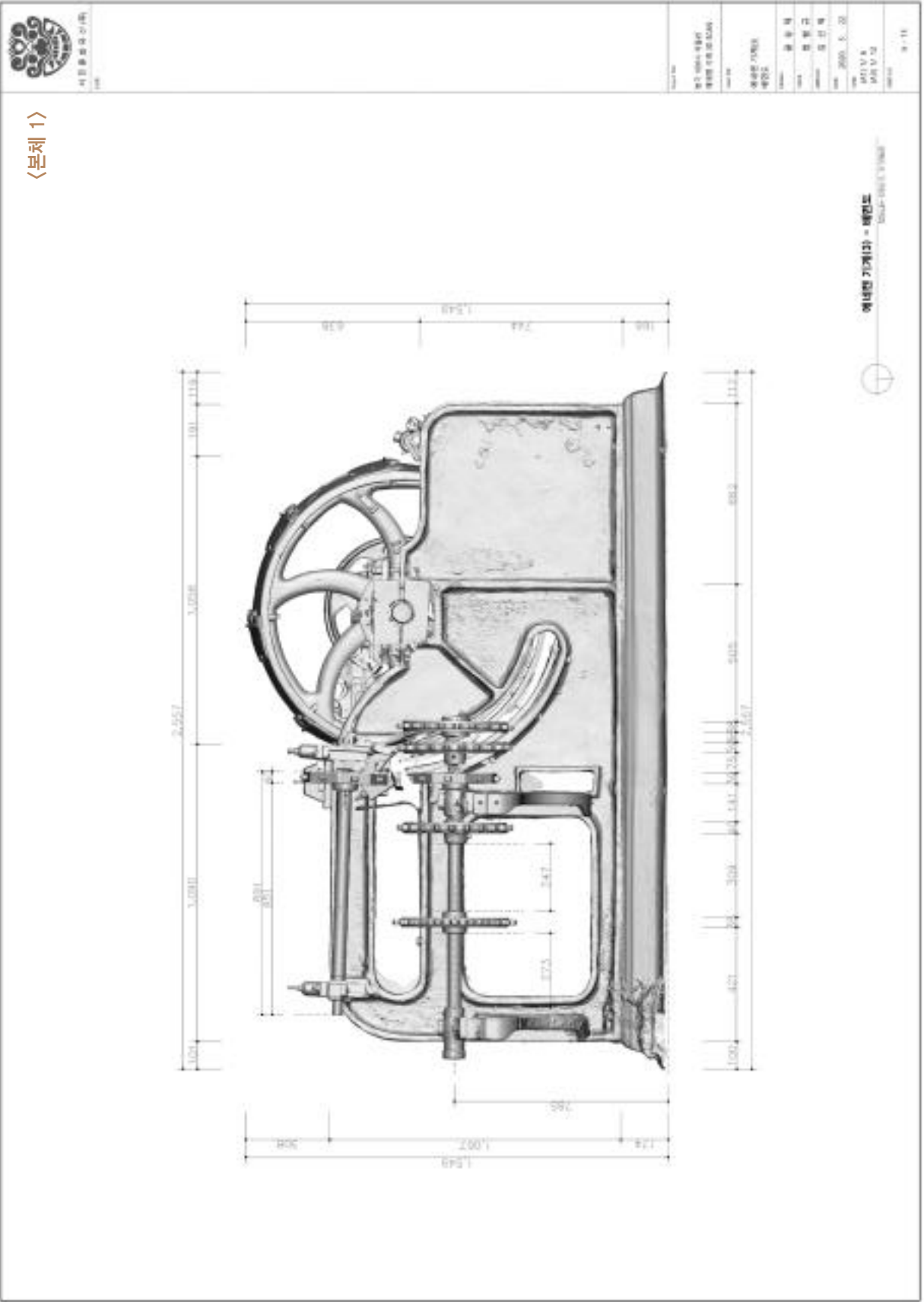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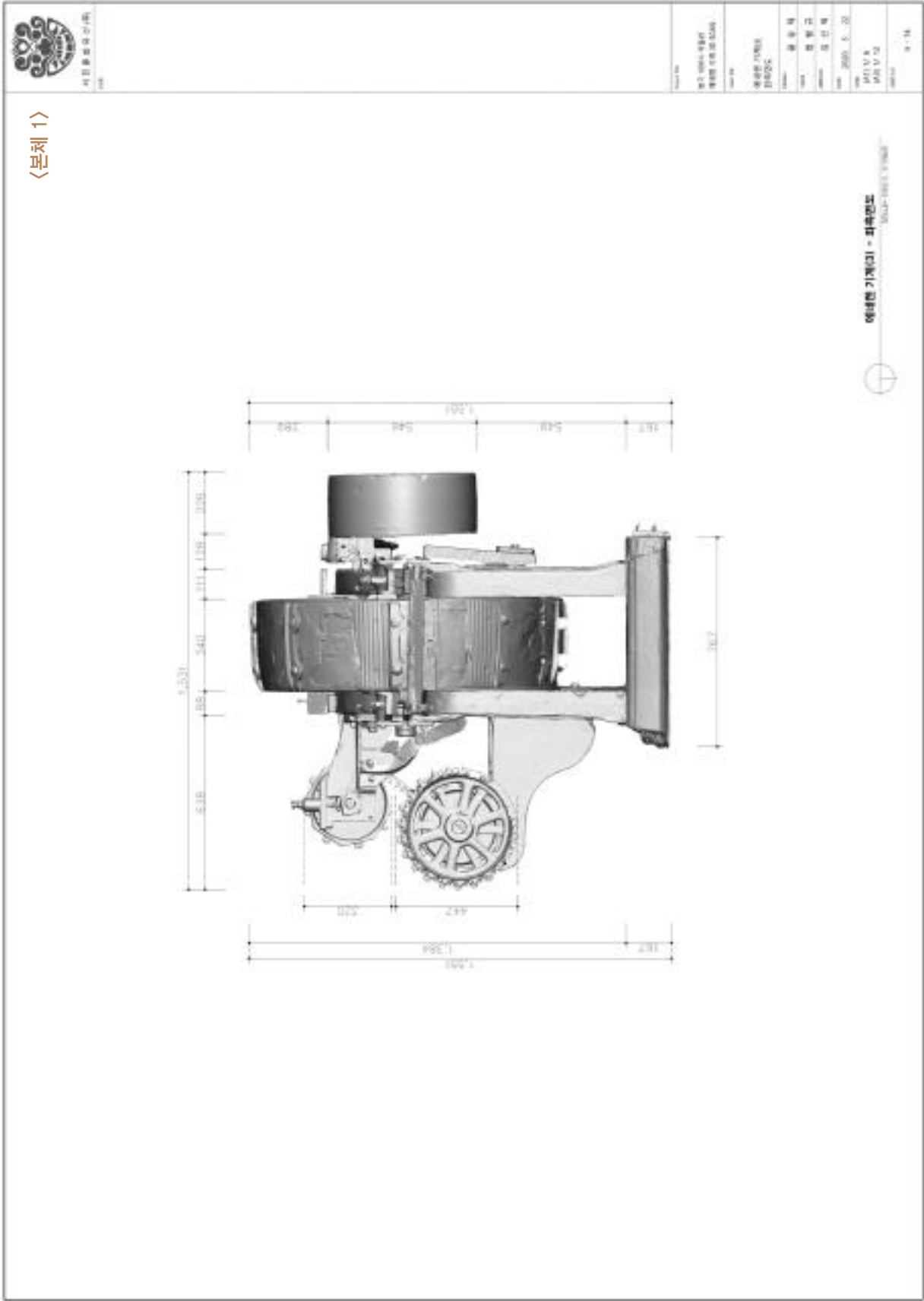
〈본체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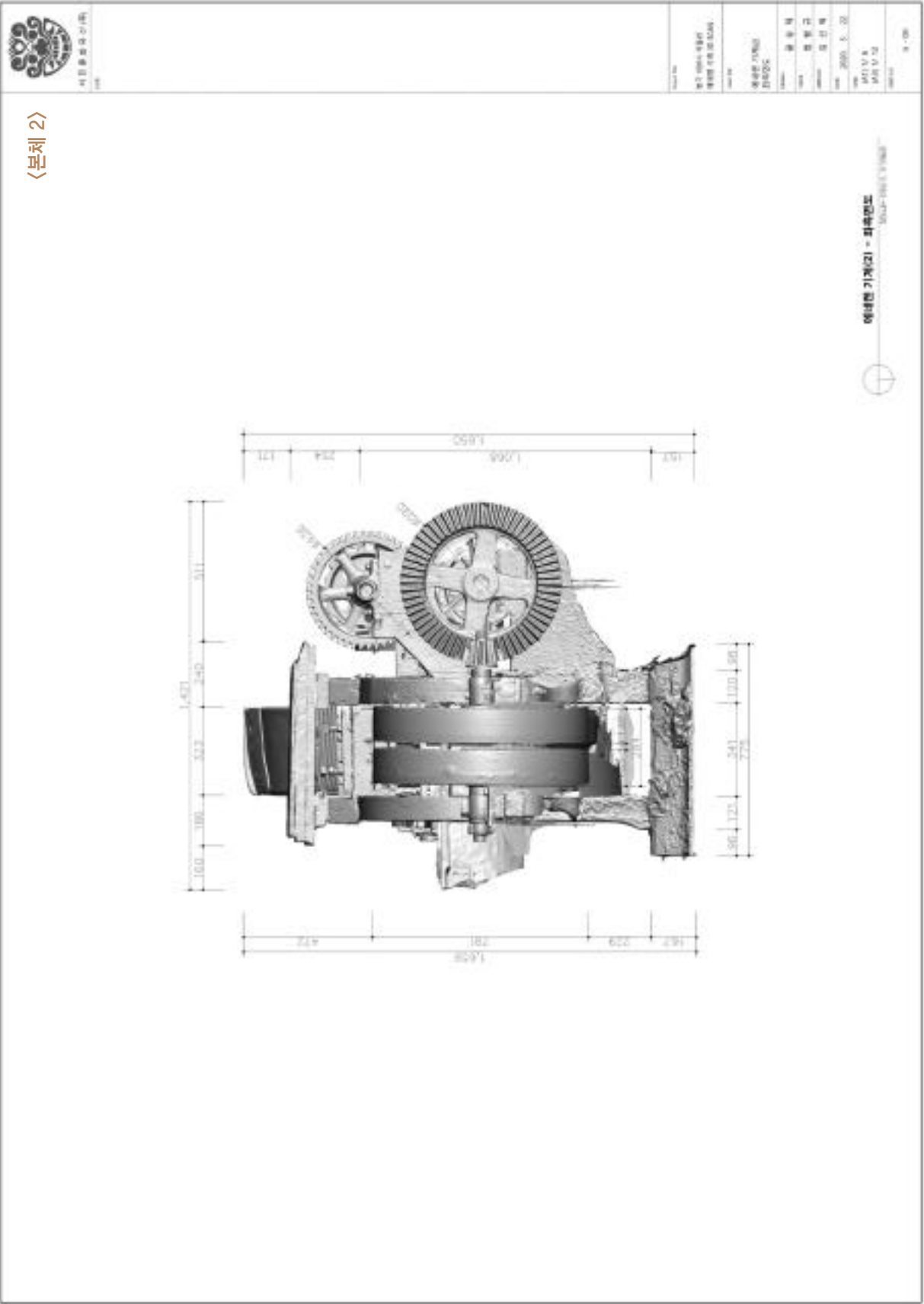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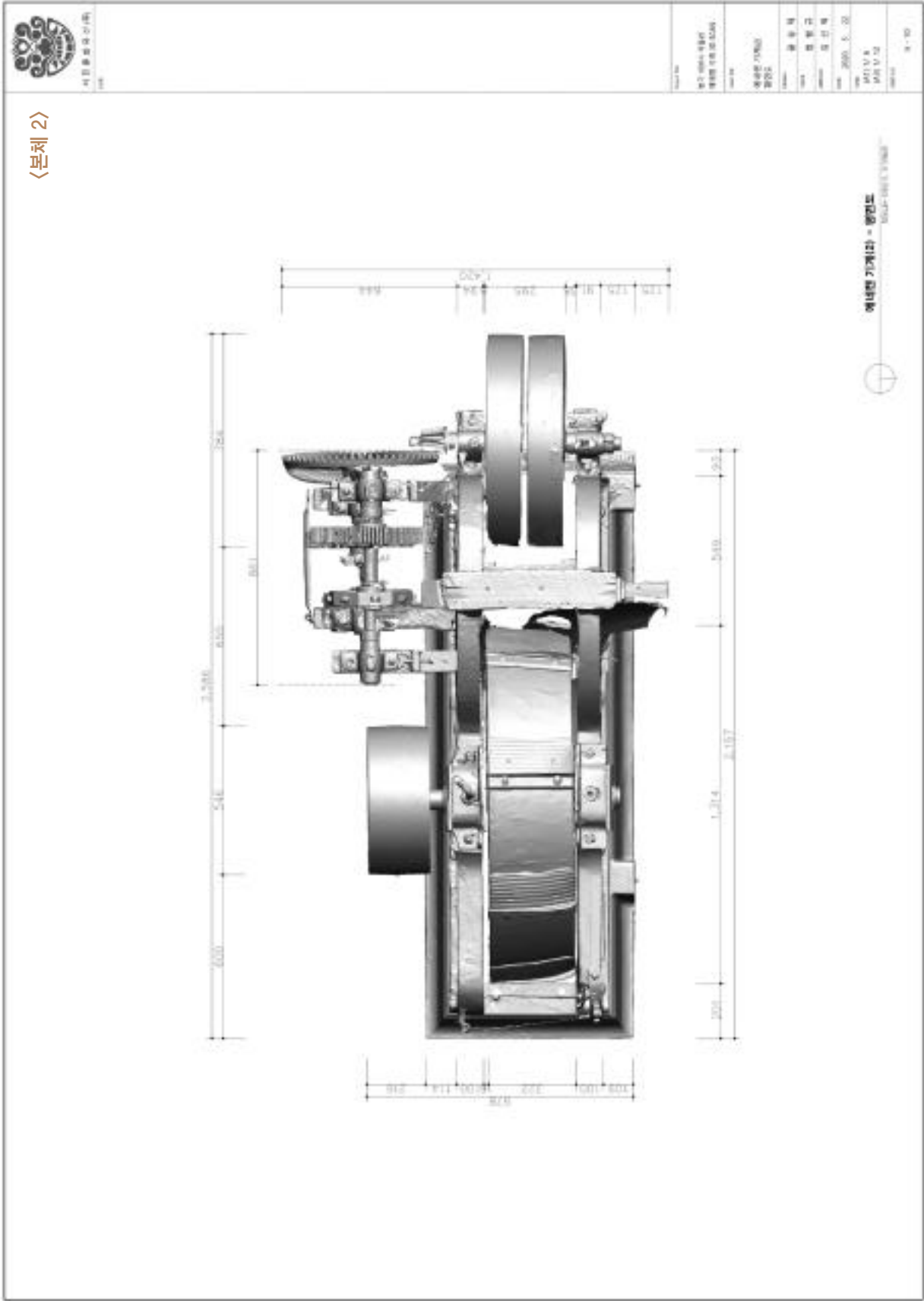


〈본체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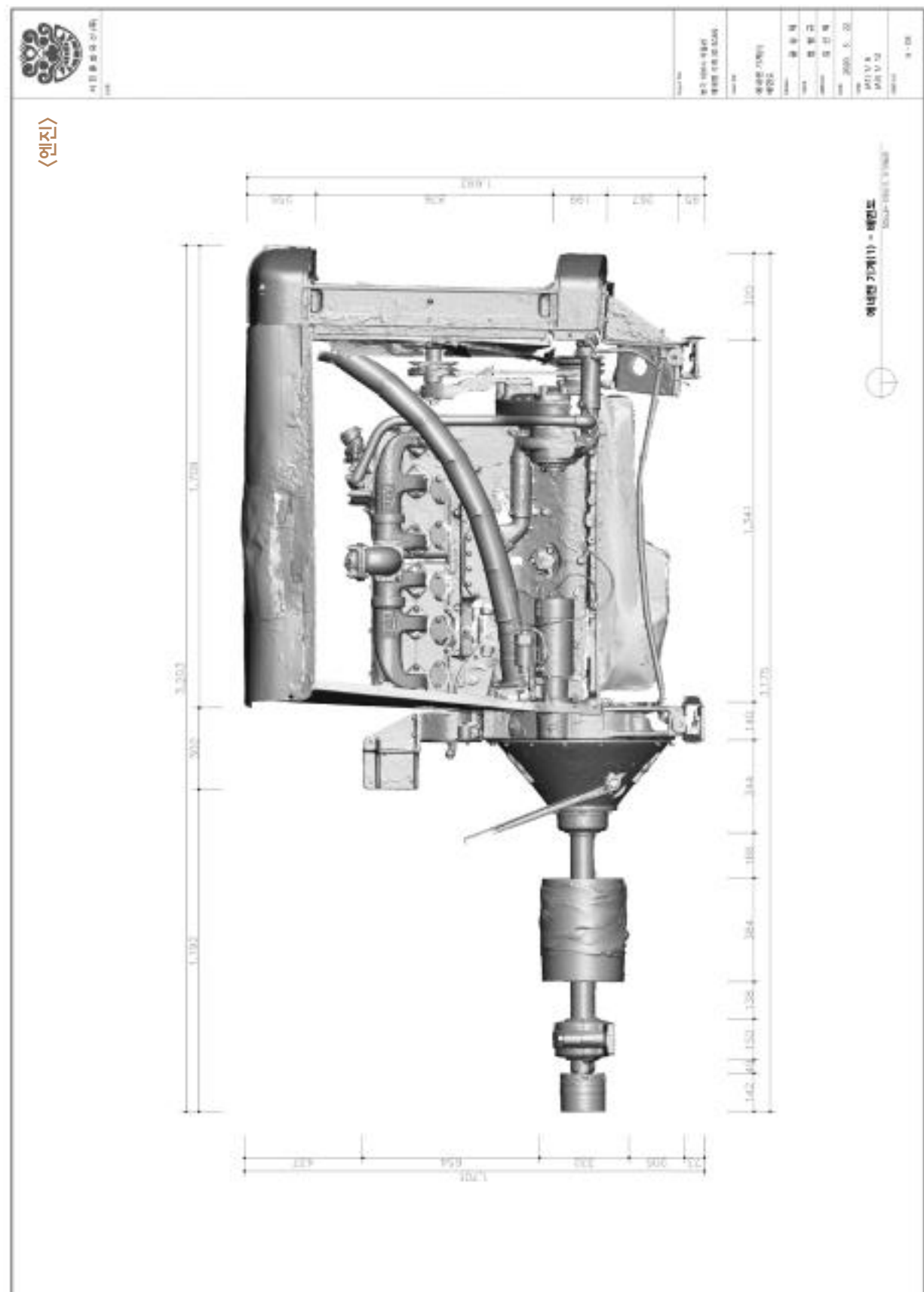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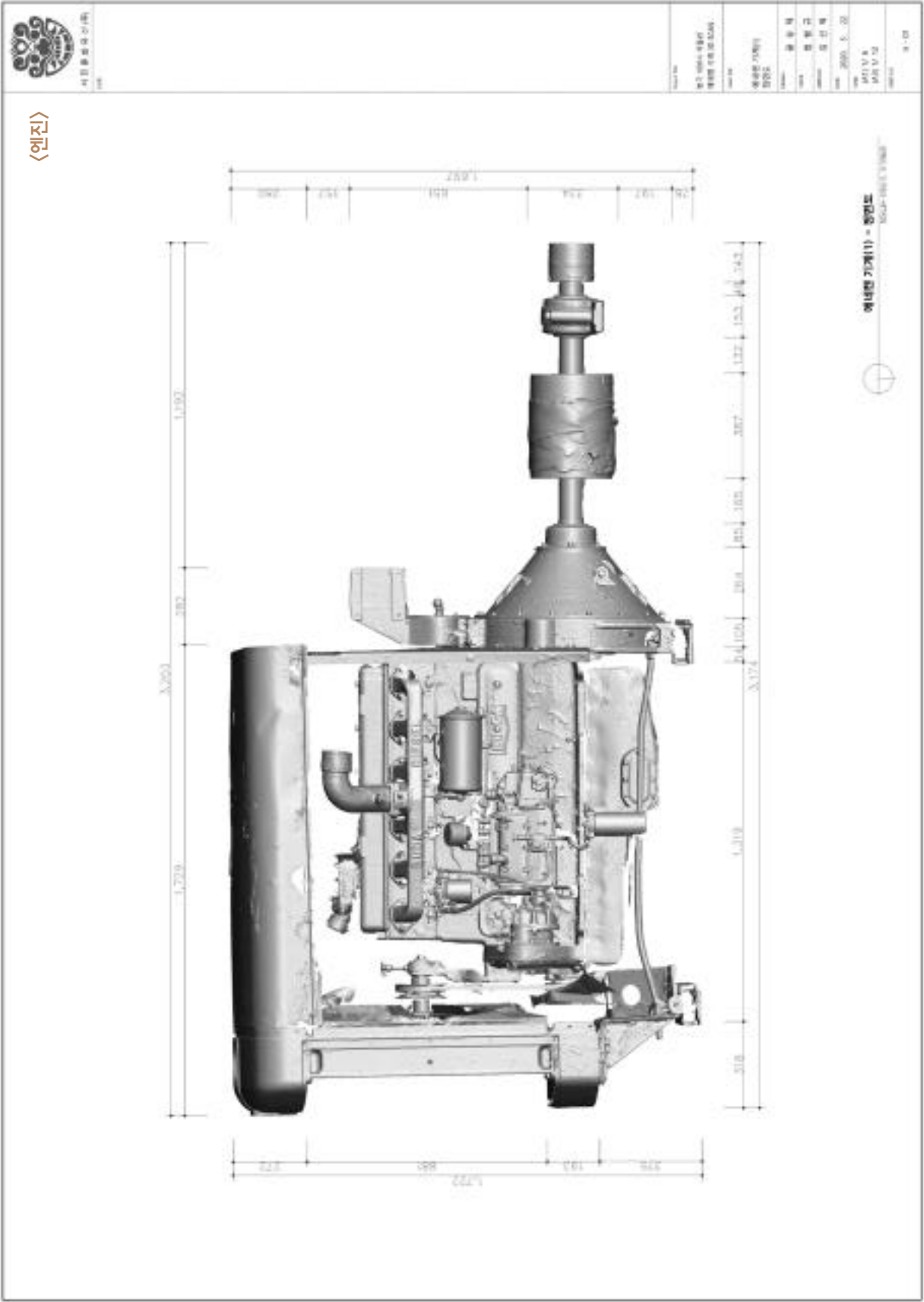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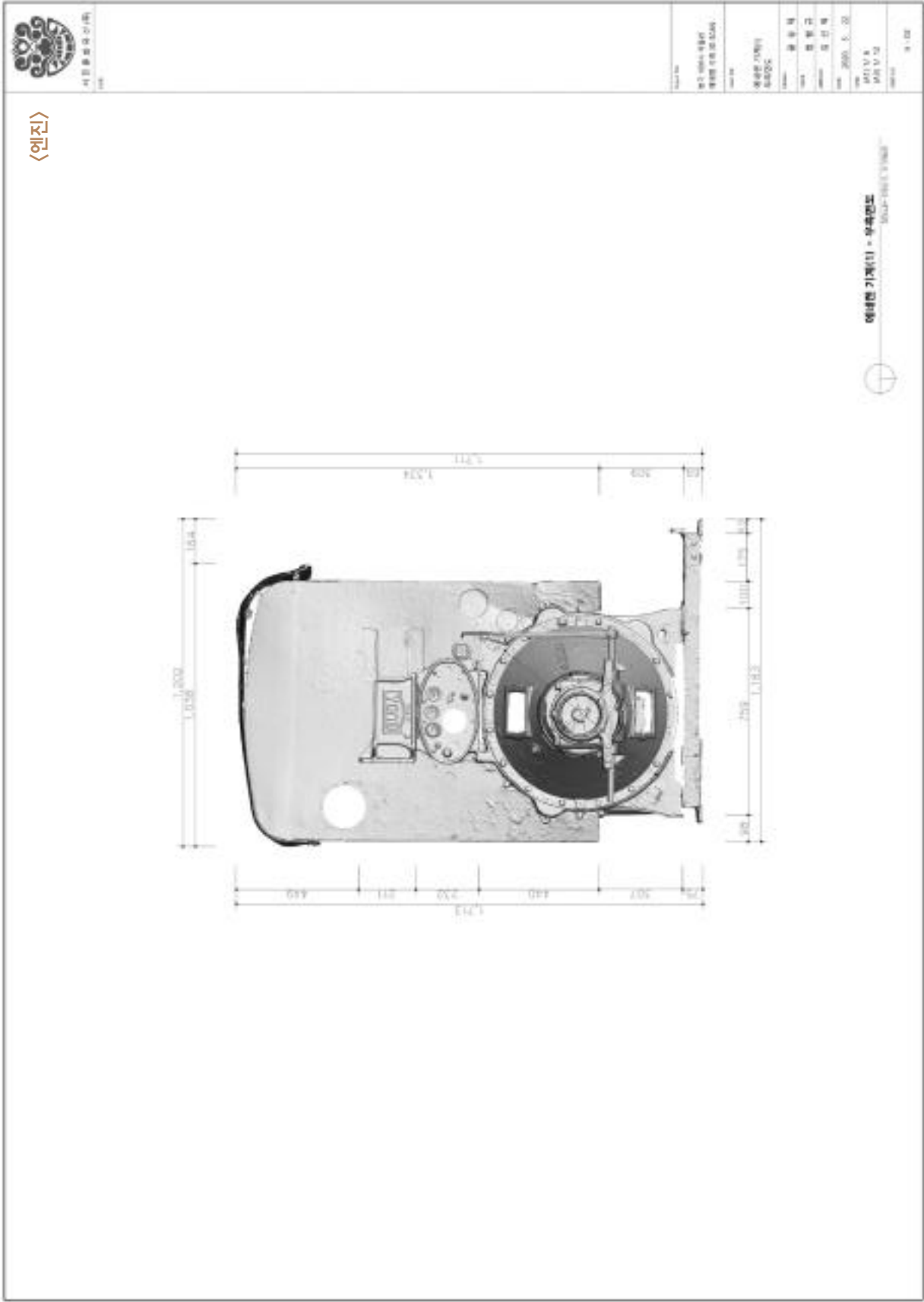














한국이민사박물관 에네켄 기계 학술조사 보고서

발행일 : 2020. 12.

발행처 : 한국이민사박물관

22304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도 329

TEL. 032. 440. 4710

<https://www.incheon.go.kr/museum/MU040101>

디자인 : **Designhada**^{MK}